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 2차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Korea Church Women United Counselling Center for Migrant Women Workers

● 후원:  여성부 ● 공동협력단체: 두레방

성 산업에 유입된 외국인에 관한

제 2차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정보자료실
Ma1.9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Korea Church Women United Counselling Center for Migrant Women Workers

110-740 서울서 동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110호

전화: 02) 708-4181~3, 전송: 02)708-4186, E-mail: kcwu@chollan.net home: http://kcwu.org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 2차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Korea Church Women United Counselling Center for Migrant Women Workers

● 후원:



여성부

●

공동협력단체: 두레방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 2차 현장 실태조사 보고와 토론회

제 1부 보고 회: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 여는 기도/ 권순정 사회선교위원회 위원장
- 인사 말씀/ 성영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 경과 보고/ 이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 제 2차 실태조사 보고/ Jasmin Peralta, Sallie Yea,
Marissa C. Navidad, 정주진, 조진경
- 연대와 축하의 말씀/ 최의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피해자 증언: 기지촌 필리핀 현장 여성

제 2부 토론회

주 제: '국제 성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방안과 실천'

사 회: 이문숙 소장

토론자: 김은정 서기관 (여성부 권익증진국)

Reydeluz D. Conferido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

Fr. Glenn G. Jaron 소장

(혜화동 천주교 서울대교구 필리핀인 사목상담소)

현장 지원단체

양혜우 소장 (이주노동자인권센터)

고현웅 소장 (국제이주기구)

김원출 신임회장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전 한국특수관광협회))

목 차

순서 - 1

목차 - 2

보고회를 열며 - 3

I. 시작하는 말 - 4

II. 필리핀 상황에 대한 사전조사 - 12

III. 개괄적 보고 - 18

IV. 지역별 보고 - 34

1. 이태원과 평택지역 보고 - 35

2. 동두천과 도계리 지역 보고 - 70

3. 의정부 지역 보고 - 98

V. 마치면서 - 122

부록

설문지1 - 129

설문지2 - 138

사례 - 147

일지 - 193

송탄 시민들의 요구 - 198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 2차 현장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는 1996년 개소 이래 꾸준히 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1999년,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들의 문제가 우리사회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 현장 실태조사 발표를 하여 이 문제에 대해 여론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인권문제에 대한 연속적인 관심으로 외국인 여성들의 기지촌 성산업 유입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전문 조사자들이 기지촌 현장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외국인 여성들을 만나고, 심층대화를 한 후, 그 자료들을 기초로 다시 열띤 토론을 하여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 일이 국제 성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소중한 기초작업이라고 믿습니다.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 2차 현장 실태조사 보고회와 토론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이 조사를 기초로 앞으로 할 일들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성영자 회장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이문숙 소장

I. 시작하는 말

전세계적으로 사기, 협박 등으로 다른 나라로 팔려다니는 여성과 어린이 수는 지난해 만도 70만 명이라고 한다. 유엔은 90년대 후반 5년 간 여성인신매매는 국제무역의 형태로 급증해 연간 80억 달러규모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몇몇 조사들은, 경제난으로 빈곤해진 나라 여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이주여성이 늘어나고 이중 일부 혹은 상당수가 성매매 구조에 흡수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줄곧 가난하면서 달리 생계수단을 찾지 못한 여성들이 일반 성산업 혹은 기지촌 매매춘산업에 유입되었으나, 9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인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가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로 변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가난한 나라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나서면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문제와 성매매문제가 결합한 것이 외국인 성인신매매문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성인신매매문제에 대해서도 기본법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외국인 성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대개 인터테인먼트(E6)비자로 입국하므로 노동자의 범주에도 들지 않아, 자신의 처지를 노예로까지 표현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만큼도 고통을 호소하기 어렵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는 1999년에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 1차 현장실태조사'를 하여, 성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던 우리 사회에, 이 여성들이 겪는 인신감금, 강요된 성매매 등의 인권 침해상황에 대해 폭로하고 우리사회의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다할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성인신매매현장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리핀,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터키 등에서 온 여성들이 늘고 있다. 기지촌 자활공동체 새움터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동두천 의정부 과주 평택의 업소에서 러시아여성 고용비율은 99년에 견줘 적게는 2배, 최고 15배까지 늘었다고 한다.

우리회는 날로 증가하고 세계화해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방안과 실천모색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자료구축을 위해 2002년에는 여성부 지원으로 제 2차 현장실태조사를 하였다. 필리핀 출신과 호주출신등의 조사지들과 협력하여 기지촌 클럽을 파고 들어 외국인 여성들에게 다각도로 더욱 가깝게 다가가서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현재 필리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을 감안해 우선 필리핀 여성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좁혔다.

지난 4월 말 미국의 방송 '폭스8'은 한국 동두천 기지촌의 인신매매 현황과 이와 관련한 미군 당국과 미군 경찰대의 역할을 폭로했다. 이 방송이 나가자, 미국의회와 행정부가 중요하고 13명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린스펠트 국방장관에게 성명서를 보냈다.

1999년까지만 해도 기지촌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성병검진을 받는 보건소에 이 여성들에 대한 치료에 쓰이는 약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성병관련 책자를 여성들에게 무료로 배부했다고 한다. 성병에 걸린 미군과 성관계한 여성을 감독하고 치료를 강요했고, 이때 치료는 미군이 무료로 제공한 약품으로 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미군당국과 미국정부가 기지촌의 성매매 상황을 몰랐을 리 없을 텐데, 마치 한국 기지촌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진 듯 아단법석이었던 모양이다.

미국이 작년부터 인신매매 보고서를 내며 자기들 기준에 따라 한국을 3등급이니 1등급이니 매기는 것이나 이렇게 기지촌 성매매실태를 놓고 새로운 일인 듯 보도하고, 예술홍행비자를 무심코 발급하고 기지촌 업주들이 러시아와 필리핀 여성들을 마구 공수하는 것을 묵인해오던 정부나 언론이 미국의 보고서나 방송의 영향으로 새삼스럽게 이를 막겠다고 나서는 것은,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는데도, 한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어떻게 불어온 바람이든, 이 바람을 타고, 기지촌이든 일반성산업에서든 외국인 강제성매매와 그로 인한 없애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때맞춰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도 자체 법률안을 만들어 놓고 있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강요에 의해 성매매된 사람뿐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도 불평등한 사회구조적인 피해자라는 점에서 수사절차상 인권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성매매 업소 업주들의 알선 등을 빌미로 한 착취에 대한 처벌 이외에도 성매매여성 등을 성매매업소 등에 공급, 소개하거나 이를 대리하여 관련 여성들과의 고용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는 직업소개소 관련자, 사후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자, 성매매알선 및 직업소개 등 이윤을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제공한 자 일체를 규정하였다.

여성계가 이러한 법률안은 내놓은 것은, 광범위한 성매매 알선 조직과 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가 실시한 제 2차 조사에서도 과연, 국제적인 성인신매매도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고리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이 드러났다.

시간에 쫓기며 하던 일을 덮는 심정으로 이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미처 다듬지 못한 자료들이 날것인 채로 자리한 곳도 여러곳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장을 읽는 데 이만한 자료가 아직은 없으며, 앞으로의 논의를 불붙이고 대안을 찾아가는 데도 적으나마 분명한 몫을 하리라 믿는다.

1. 조사 과정과 방법

이번 실태조사는 2002년 3월부터 시작하였다. 우선 현장 단체들(두레방, 새움터 등)의 협력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조사 방법과 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외국인 조사자는 1명은 필리핀인으로, 상담과 여성학을 전공한 종교인으로서, 한국에 이주한 지 9년째 되는 여성이었으며, 또 다른 한명은 호주인으로, 호주의 한 대학에서 여성문제를 가르치는 여성으로, 한국의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의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에 와 있는 여성이었다.

이들과 함께 설문지를 작성하고, 조사자들을 위한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다. 여러 차례 사전 모임을 통해, 조사 지역과 조사 방법, 조사 대상을 결정하였다. 조사 지역은 서울·경기 지역의 기지촌 일대(이태원, 의정부, 평택, 동두천)로 정하였으며, 조사 대상도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광범위하게 여성들을 인터뷰하고 싶었지만, 제한된 시간과 예산으로 심층인터뷰 대상을 60명으로 정하였다.(클럽 안의 여성 30명, 클럽 밖의 여성 30명) 한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필리핀 여성이 이태원과 평택 지역의 조사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호주 여성은 당시 세계적인 기지촌 성매매 집결지지역으로 유명한 동두천 지역의 조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사실 여성 혼자 현장을 다니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피하기 위해선 이렇게 독자적으로 조사에 나설 수 밖에 없었으며, 조사자 각자의 방법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7월부터 시작하였다. 본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는 조사자들의 조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조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조사자들과는 매주 1번씩 실태조사 보고워킹숍을 실시하여, 조사자들이 현재 한국사회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나누고,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법, 대화를 끌어내는 방법 등의 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8월에 이르러서야 겨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필리핀 '성매매 근절을 위한 현장단체' 실무자를 초청하게 되었다. 꼭 필요한 활동이며, 정부 지원의 사업을 수행하는 일 위해 조사자를 초청하는 일이었지만, 초청 과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웠다.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4월부터 8월까지 이메일을 통해 매일 편지를 주고 받다 시피 했으며, 조사자 초청을 위한 예산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준비해 오라는 서류들이 다 갖추고나서 이젠 다 되었겠거니 하면, 여성부 장관의 고용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여성부는 여성부 장관의 고용 추천서를 출입국관리소에 보냈으며, 이에 우리는 필리핀 현장 활동가를 초청할 수 있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해외 인력 초청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E-6 비자는 그렇게 쉽게 발급이 되는지 의아했다. 또한 출입국 관리소에서 요청한 고용계약서는 한국말과 현지말(또는 영어), 2중으로 번역되어야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조사 결과 밝혀진 대로라면, 기지촌에 유입되는 필리핀 여성들은 한국말로 된 고용계약서만을 봤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소의 해명이 꼭 필요하다.

8월에 필리핀 현장 실무자가 조사원으로 결합하면서, 실태조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정부의 외국인력종합대책이 발표되고 난 후, 기지촌 일대에 불법체류자 강제 단속을 위해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나 경찰들이 상주하게 된 일이었다. 이때, 조사자들에 의해 밝혀진 사실은, 클럽 여성들의 자유시간이 제한되었으며, 외출이 금지되었고,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이 여성들에게 돌려졌으며,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해야 하는 말을 교육받았다는 것이다. 조사자들의 조사는 여성들의 자유시간 감소와 업주의 물샷틈없는 감시로 더욱 어려워 졌다. 또 다른 사건은, 4월에 미국에서 방영된 폭스8 TV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미국 현지에서, 한국의 기지촌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7월, 뉴욕 Times 기자에 의해 한국의 모 여성단체(우리 회)의 실태조사 사실이 신문에 소개되면서, 본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미국이 하품하면, 한국에서 태풍이 분다고, 국내의 언론과 정부 부처, 각계 각처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매일 대

서 특필을 하고, 현장에 내려가서 간담회를 열고, 여성들에게 교육을 하는 등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조사자들의 조사는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사자들의 안전까지도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자들의 조사는 11월까지 계속되었으며,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로 70여명의 여성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 10월, 사무국에서는 분석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한국인 분석팀을 구성하였으며, 조사자와 한국인 분석팀이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토론하여 이렇게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조사 기간과 과정등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조사 기간: 2002년 7월 - 11월

2) 조사 지역: 서울·경기 지역의 미군 주둔 기지촌 일대(이태원, 의정부, 평택, 동두천)

3) 조사 방법

(1) 지역조사

- 문헌조사
- 현장답사, 현장단체 방문

(2) 조사방법 설정과 설문지 작성

(3) 조사원 구성

(4) 현장 조사

- 설문조사
- 심층 인터뷰

총 70명 여성을 인터뷰하였으며, 총 31개 클럽을 조사하였다.

- 실태조사 보고 워킹 20회

(5) 분석과 보고서 작성

- 한국인 분석팀 구성
- 조사원과 한국인 분석팀과 보고서 작성 워킹 10회

4) 조사팀 활동

(1) 팀구성

- 조사책임: 이문숙 소장
- 실무: 조진경 간사

- 조사자: 자스민(Jasmin Peralta)

셀리(Sallie Yea)

마리사(Marissa C. Navidad)

- 현장 지원: 두레방

- 분석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워킹과 공동집필팀: 자스민, 셀리, 마리사, 정주진(대표집필), 김미선(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김동심(두레방), 이문숙, 조진경

(2) 경과

- ▶ 3월-5월 문헌조사, 현장여성 지원단체 '두레방'과 실태조사 공동계획
- ▶ 4월-8월 필리핀 현장단체 'BUKLOD Center'에 조사원 초청요청, 초청에 필요한 작업.
- ▶ 6월 설문지 작성, 조사원 모집, 지역확정, 조사 방법 연구
- ▶ 7월 지역조사 실시, 조사 지역 방문, 현장 단체 방문
- ▶ 7월-10월 이태원, 송탄 지역 실태조사
- ▶ 8월-11월 동두천 지역 실태조사
- ▶ 8월-11월 의정부 지역 실태조사
- ▶ 7월-11월 실태조사 보고 워킹
- ▶ 10월 한국인 분석팀 구성
- ▶ 10월-11월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보고서 제작을 위한 확대 워킹
- ▶ 12월 5일 최종 분석과 평가
- ▶ 12월 11일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 2차 현장실태조사 보고와 토론회

2. 보고서의 특징과 구성

본 보고서는 한마디로 땀과 발로 쓰여졌다. 사명감과 애정으로 몇 달동안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 땅의, 그것도 한국 사람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기지촌의 곳곳을 누비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지촌에 유입된 여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여성들을 도와주었

던 조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 보고서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협력해주었던 현장단체 두레방,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의 김미선 국장과 번역과 통역, 개괄적 보고를 훌륭하게 써주신 정주진씨, 바쁜 일정 중에도 함께 해 주고 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정확한 분석이 되도록 도와준 두레방의 김동심씨, 번역과 통역을 도와 준 천현주씨, 장희원씨, 홍성은씨, 김희선씨, 정애성씨, 최수연씨, 율가, 이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문헌 분석이나 탁상토론이 아니라 최근에 기지촌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들과 심층적인 대화를 통한 현장의 실제적인 소리를 담은 현장 보고서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철저하게 공동작업으로 작성되었다. 다양한 국적과 인종,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차례 공동웍샵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사례를 분석하였기에, 이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송출국가에서 미리 한 실태조사를 기초로써, 송출국과 유입국 활동가가 공동작업을 해 낸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향후, 송출국가와 유입국가 사이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본다.

조사자들은 이 보고서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정보를 어떤 의도에 맞춰 가공하지 않았으며(예를 들어 특정 사례를 전체인 것처럼 부풀리거나, 의도하는 부분에 맞지 않는 자료는 삭제한다든지 등), 객관적으로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의 여러 가지 실태와 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조사자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오는 조사의 한계가 있으며(조사자들은 지역정보의 부족을 많이 느꼈으며, 지역별 현장단체의 도움이 절실했다), 시간의 절대적 부족과 재정의 부족에서 오는 조사의 부족함도 많다. 또한 급박하게 돌아갔던 기지촌 상황의 변화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여성들을 만날 수 없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보고서가 기지촌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들의 실태에 대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알릴 수 있으며, 본 자료들이 국제적 성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 자료를 사용될 것임을 확신한다.

보고서는 II. 필리핀 상황에 대한 이해로 시작한다. 이 필리핀 상황에 대한 보고서는 필리핀 '성매매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BUKLOD Center'에서 집필하였다. 현장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는 IV.지역별 보고라는 제목으로, 조사자가 지역별로 조사한 내용을 설문과 심층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집필하였으며,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조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 보고는 다시, 이를 전체적으로 묶어 분석한 결과를

III.개괄적 보고라는 제목으로 지역별 보고 앞에 실었다. V.마치면서는 본 보고서의 결론과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V.는 공동작업을 통해 작성되었다.

부록에는 첫째로, 조사자들이 사용한 설문지 원본을 실었다. 조사자들은 2가지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초기 인터뷰를 위해 일반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다른 하나는 여러 번 만날 수 있었거나 깊은 질문이 가능했던 여성들에게 사용하기 위해 자세하게 작성되었다. 여기서는 2가지 설문지를 다 실었다. 두 번째로, 11개의 인터뷰 사례들을 번역하여 실었다. 분석팀에서는 70개의 인터뷰 사례들을 유사한 사례들로 분류하여, 그 중에서 대표적이나 독특한 사례들을 뽑아서 보고서에 실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세계의, 한국의 변화 상황에 대한 일지를 수록하였다.

II. 필리핀 상황에 대한 사전조사

1. 개요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한국으로 이주하거나 인신매매를 당한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조사를 착수함서 사전이해를 위해 필리핀 여성운동가 아이다 산토스(Aida F. Santos)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였다. 이 글은 아이다씨가 필리핀 현장을 돌며 쓴 보고서의 일부이다. 한국으로 이주 및 인신매매를 당하는 여성들의 상황은 세계화와 더불어 필리핀 자국내의 사회·정치·경제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필리핀 행정당국의 이주정책과도 관련되어 있다.

2. 사회·경제적 배경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여전히 만성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필리핀 빈곤 완화 정책의 성과는 미미한 형편이다. 1975년 140만이었던 빈곤층 인구는 1985년에 천7백7십만, 그리고 1995년에는 천7백6십만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 현재 전체 7천5백만 인구 중 약 3천4백만에서 3천5백만이 빈곤의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 이뤄진 필리핀의 경제성장은 부동산과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한 거품경제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성장은 주로 마닐라와 주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됐고 농촌지역은 이의 희생양이 됐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간 격차를 악화시키고 농촌지역의 빈곤감소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현재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인 PCTC (Philippine Commission on Transnational Crimes: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필리핀 대책기구)가 인신매매, 밀수, 저작권침해, 돈세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와 관련된 일은 거의 다뤄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성 인

신매매와 관련한 문제는 더욱 열악한 상태이다.

필리핀의 사회적·정치적 위기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좌절감이 팽배해짐에 따라 수천만의 필리핀 사람들이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뤄진 조사들에 의하면, 이주가 자신들과 가족들의 단기적, 장기적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즉 필리핀의 부패, 범죄, 지속적 빈곤이 사람들의 이주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3. 이주 경향

필리핀에서는 이주가 인신매매자들과 송출업자(recruiter)들에 의해 인신매매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져 왔다. 가장 빈번한 인신매매의 형태는 매성매매, 성관광, 그리고 우편/인터넷 주문 신부이다.

필리핀은 이주에 있어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식민지 시대동안 필리핀 사람들은 하와이의 농장에서 일했고, 필리핀 지식인들과 교수들은 더 높은 학위를 얻기 위해 외국 대학에서 공부해왔다. 그러나 필리핀 국민들이 해외계약노동자(OFWs)로 공식적인 정부의 허락을 받아 나가게 된 것은 1970년대 마르코스 정권에 이르러서였다.

필리핀 노동고용청(DOLE)의 통계치는 해외 필리핀인들중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1975년에는 12%, 1987년에는 47%, 1995년에는 58%까지 증가하였다. 1999년 1월에서 12월까지 해외에 취업한 인구 중 64%가 여성이었으며, 단지 36%만이 남성이었다. 1999년 신규로 해외에 취업한 이들 중에는 서비스 종사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35.46%).

특별히 해외 필리핀 노동자 중 많은 수가 불법 이주자들이다. 필리핀을 떠나는 밀입국 노동자들의 수치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다. 필리핀 군도에는 수많은 항구가 있고 해안선이 방대해서 사람들의 출/입국을 감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국제적인 이주는 노동력 인신매매 뿐만 아니라 성 인신매매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인신매매 당하는 여성들의 수를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성매매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심지어는 공식적인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밀입국 및 합법적인 이주 여성들이 성 인신매매에 얼마나 취약한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정부 관료들과 당국들의 결탁으로 인신매매는 더욱 쉬워지고 이를 알아내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해외노동자(OFWs)의 비율은 1975년 12%에서 1990년대에는 60%로 지속적으로 증가했

다. 세계 주요 19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이주한 약 6십만의 필리핀 여성노동자들이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 (POEA, 1998). 1998년 통계에 의하면 홍콩, 마카오, 한국, 사이판, 일본의 5개국에서 약 47,017명의 필리핀 여성들이 소위 "연예인"(성산업 종사자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이중 95%가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및 2000년 초반 전체 필리핀 해외노동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0-70%에 달했다.

해외로 이주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늘고 있는 연유는 다음과 같다:

1. 개요

- 1) 필리핀 정부의 공식 이주정책이 여성의 이주를 촉진시켰으며, 다양한 정부기구들과 모집 기관과의 협력 하에 활성화되었음.
- 2)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돌보는 일과 남을 즐겁게 하는 일, 즉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성고정관념이 직업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됨.
- 3) 농촌의 피폐와 토지소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조정프로그램이 빈곤을 심화시키고 더 많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내몰게 됨
- 4)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지원체계의 붕괴에 따른 여성가장의 증가
- 5) 여성들에게 나은 직장, 나은 기술, 나은 미래를 보장해줄 취업기회의 부족
- 6) 빈곤 가정의 여성 소득 의존도 증가
- 7) 보다 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의 이주 여성노동력에 대한 요구
- 8) 고용국(destination countries)의 경제성장
- 9) 출신국 및 고용국에서 여성의 재정 및 경제 그리고 자율권에 대한 인식의 확대
- 10) 고용국에서 여성 및 남성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한 외국노동력 필요성의 확대
- 11) 고용국에서의 스트립쇼 등 "유흥"으로 가장된 성매매 및 그와 관련한 성산업 활동의 일반화

4. 이주정책에서의 성차별적인 면: 필리핀 이주여성들의 모습

정부의 이주정책은 정부기관들로 하여금 여성들의 해외이주를 촉진시키고 이들을 저임금, 열악한 상황, 그리고 성착취와 인신매매의 상황으로 이끄는 직업들을 증가시키게 하고 있으며, 필리핀 여성들을 위협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필리핀여성노동자들은 가정부 혹은 "연예인"으로 일하고 있다.

해외 필리핀여성들은 일반적으로 해외 필리핀남성에 비해 더 젊다. 여성들은 또한 어린

나이에 불법적으로 모집되고 있다. 조사들에 의하면 많은 여성들이 18세 이하 또는 20대 초반에 모집됐고 이들은 불법적으로 모집되어 인신매매를 당했다.

합법적으로 이주한 여성들의 경우에도 더 어른스럽게 외모를 꾸며 실제 나이를 속이고 있다. 유흥업 혹은 성산업에서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도 거래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든 것으로 간주된다.

5. 한국으로의 이주노동: 개괄

공식적인 통계에서 보면, 한국으로의 이주노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나 중동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년동안 이 수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들은 주로 단순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우편주문 신부시스템과 인신매매, 성착취의 도구로 악용되는 영역에 고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으로의 이주를 부추기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 빈곤과 고용기회의 부족 - 이주노동은 빈곤화가 확대되고 있는 필리핀 사회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연예인"의 경우 후한 돈을 지불하는 단골이 있을 경우, 이들로부터 팁을 받거나 혹은 외국인 구혼자와 결혼함으로써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 여겨진다.
- 2) 낮은 수준의 교육과 모집과정에 대한 정보의 부족 - 인신매매를 당할 때의 나이, 낮은 교육수준, 많은 여성들을 종속적이고 취약하게 만드는 모집과정, 이주시스템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 3) 성적 학대의 경험 - 조사에 의하면, 어렸을 때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성적 착취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보다 쉽게 해외 취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4) 가족의 압력 - 가족들의 극심한 압력에 의해 해외 취업을 결정한다.
- 5) 여성들 자신의 개인적, 경제적 독립을 위해 - 해외취업의 꿈을 시도하는 여성들의 경우 가난만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여성들은 개인의 경제적 이유나 심리적 측면에서 자기자신을 찾기 위해 해외로 취업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어떤 여성들은 해외취업을

외국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 해외취업의 성공담 - 외국에 자녀나 친척을 갖고 있는 가족들은 흔히 운이 좋다고 여겨진다. 실패한 해외취업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얘기를 하지 않으며 성적 착취를 당한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이 성공담과 함께 학대, 폭력 등의 상처를 안고 돌아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취업여성을 미화시켜 여성들의 해외취업을 부추기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치욕과 실패에 대한 당혹감을 피하려는 경향은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경험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침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6. 모집되는 과정

필리핀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취업은 다른 국가들로의 이주와 다르지 않다. 이주자들은 정식으로 등록돼 필리핀 해외고용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합법적 경로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된 기관들마저도 부패하여 인신매매자들과 인력송출업자들에게 의해 악용되고 있다. 이주자들은 국제인권법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인력송출업자들과 인신매매자들이 이주자들의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약점을 악용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게다가 합법적인 이주나 합법적인 모집조차도 성착취의 방지나 인신매매자들의 착취를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들이 직접 인력을 모집을 하지는 않지만 인력송출에 도움을 제공하므로 필리핀 해외고용국과 노동고용국을 통한 모집인들과 지역사회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방법 때문에 불법 송출을 찾아내기가 힘들다. 공무원들은 등록된 단체를 통해 인력송출이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모집의 다음 단계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송출업자들 또한 다른 하부 모집책들과 재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하부 모집책들은 모집활동에서 조심할 이유가 없으므로 불법적인 모집을 하고 결국 이것이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Dumaguete시의 가난한 지역에서는 가정부로 보내기 위해 젊은 여성들을 모집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는 이미 해외로의 잠재적 인신매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신매매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선 모집된 아동과 여성들은 국내 도시들로 보내지고 그뒤 불법 모집자거나 범죄조직에 의해 해외로 인신매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동과 여성의 이동을 위해 가장 흔히 이용되는 방법이 관

광 비자인데 이 경우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성매매이나 포르노를 위해 인신매매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비자가 이용된다는 사실은 이미 관계 당국도 알고 있는 일이다. 취업허가는 그후 이주국가에서 받게되므로 이러한 과정이 여성들을 인신매매와 다른 형태의 착취에 취약하게 만든다. 필리핀 송출기관들은 한국 모집기관들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들이 한국에서의 직업을 알선하게 된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부분의 필리핀 불법 체류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 지위는 흔히 비자만료나 계약 위반에 따른 것이다. 그중 많은 수가 연예산업과 같은 성적 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된 여성들과 아동들이라는 것이다. 1997년 말 현재 한국에는 24만의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14만이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자)들이었다. 한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전문직이나 기술직 노동자들도 있다. 한국이 소위 연예인으로 취업하는 필리핀 여성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공식통계는 없는 형편이다. 한국에 입국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관광비자로 오기 때문에 필리핀 해외고용국 자료에는 이들의 통계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7. 인신매매의 결과

한국에는 성매매를 위해 인신매매된 수천명의 필리핀 여성들이 있다. 한국의 경우 공장 등에서 일하는 많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이 생존을 위한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받고 또 이들의 도움으로 탈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지 못해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자발적이지만 대다수는 비자발적으로 필리핀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머물고 있다. 이는 돌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가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관련된 나라들이 여성들을 위한 정의 실현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

III. 개괄적 보고

1. 개요

미군기지 주변의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조사는 세명의 여성 조사자들에 의해 진행됐다. 한명은 호주인이고 두명은 필리핀인이었다. 이들은 조사를 주관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지원과 협조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자들은 조사지역을 이태원과 평택, 동두천, 의정부 세개로 나누었다. 조금씩 다른 시기에 현장조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조사자들이 여성들을 만나고 그들을 인터뷰하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데는 수개월이 걸렸다. 현장조사와 함께 조사자들은 매주 교회여성연합회 프로젝트 담당자와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으며 매주의 경과와 인터뷰 자료를 사무실에 제출했다. 조사자들은 70명의 필리핀 클럽 여성들을 인터뷰했다. 조사 당시 30명은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었고 나머지 40명은 전에 클럽에서 일하다가 도망친 여성들이었다.

인터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한가지는 공식 인터뷰로 조사자들은 인터뷰 당사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또 다른 한가지로 비공식 인터뷰로 주로 자유시간을 제한 당하는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어떤 경우엔 여성들이 공식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생활에 대한 모든 면을 얘기하기를 꺼려 비공식 인터뷰가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형태든 비공식적인 형태든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들은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공식 인터뷰의 경우 기초적인 정보보다는 여성들의 개인 생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부록에 있는 사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터뷰를 끝낸 후 조사자들은 인터뷰를 분석해 자료를 뽑아내고 그에 근거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최종 보고서에서 조사자들은 필리핀 여성들의 한국 이주와 클럽에서 일하면서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일반인들이 좀 더 잘 기지춘 필리핀 여성들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록 조사자들은 8개 기본 항목을 정했다. 각각의 항목에는 관련된 자세한 정보가 실려있다. 8개 항목 이외에 조사자에 따라 한 두가지를 추가하기도 했으며 아래에 제시한 번호는 조사자 보고서에 있는 번호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들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방법
2. 조사 참여자의 신상 자료
3. 경로, 연락망, 이주 동기
4. 노동 및 생활 환경
5. 클럽 규칙, 처벌, 폭행
6. 건강, 알콜 중독, 약물 남용
7. 남자친구와 손님
8. 생활

조사자들의 최종보고서는 수정되지 않고 이 보고서에 실렸으며 각 조사자의 다른 서술 방식과 초점의 차이 때문에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조사자들의 최종보고서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이 점 때문에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은 실태조사 의 큰 그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조사자 보고서가 같은 항목과 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혼란은 없을 것이다. 조사자 보고서에 있는 몇가지 발언들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사자들은 그러한 발언들을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재단하지 않고 인터뷰한 여성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실기로 했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한 정보가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이 말한 그대로를 실었으며 조사자들은 그것을 평균치에 맞춰 재단하지 않았다. 각 조사자 보고서 맨 앞에는 각 조사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지역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실려있다.

개괄적 보고의 목적은 전체 조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독자들에게 조사자 보고서를 보기에 앞서 필리핀 여성들의 기지춘 유입과 그들의 노동 및 생활 환경에 대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괄적 보고는 조사자 보고서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계자료들은 조사자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개괄적 보고는 조사자들의 지역별 보고서를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자료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조사자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2. 조사 방법

이 실태조사는 행동 조사(action research) 프로젝트로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문제에 대해 조사 주관 단체의 관점을 말하기보다는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얘기를 통해 사실을 알고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자들은 현재 클럽에서 일하고 있거나 전에 클럽에서 일한 적이 있는 여성들을 직접 만났다. 조사자들은 기본 정보를 알기 위해 여성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해 주도록 요청했고 또한 그들을 인터뷰했다.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시간적 제약과 그들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과정 때문에 조사자들은 한명의 여성을 수차례씩 만나야 했다. 기본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짧은 만남을 여러번 갖기도 했고 때로는 수차례 만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어떤 여성들은 설문지 작성을 원치 않았다. 이런 경우 조사자들이 그들과 대화를 나눈 뒤 설문지의 항목들을 채웠다. 또 어떤 경우엔 조사자들이 인터뷰를 녹음한 후 이를 풀어서 정보를 얻어내기도 했다.

실태조사 주관 단체인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조사자들은 이 보고서에서 자신들의 관점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 실려 있는 모든 자료들은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입을 통해 밝혀진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성들과 함께 일해온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조사자들은 한국 정부와 사회와 일반 대중에게 성산업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조사자들은 이 보고서의 마지막에 있는 제안과 결론에서 필리핀 여성들의 성인신매매와 성산업 유입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을 알리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3. 조사 참여 여성들의 신상 자료

기지촌에서 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의 개인 정보를 아는 것은 다른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된다. 아래 표1에서 표4는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표1 - 나이

나이	16-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총계
여성수	7명	26명	30명	7명	70명

표2 - 교육수준

교육수준	고등학교중퇴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중퇴	대학교졸업	기타	정보없음	총계
여성수	3명	35명	7명	14명	2명	9명	70명

표3 - 결혼여부

결혼여부	독신	결혼	별거*	사실혼	정보없음	총계
여성수	42명	15명	10명	2명	1명	70명

*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 이혼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별거는 배우자와 헤어진 상태로 사실상의 이혼을 뜻한다.

표4 - 자녀

자녀수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임신	없음	정보없음	총계
여성수	17명	13명	4명	1명	2명	32명	1명	70명

몇명의 여성을 제외하곤 모든 여성들의 종교는 가톨릭이었다.

4. 경로, 연락망, 이주 동기

1) 한국 이주 동기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 여성들의 이주동기는 필리핀의 가난과 고용기회 부족이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필리핀에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을 두고 있다. 특히 여성이 큰딸일 경우에는 부모는 물론 동생들까지 부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여성들은 공부를 더하거나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돈을 벌러 한국에 오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이들을 기지촌에서 일하게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동기는 필리핀 국내의 경제적 압력이었다.

2) 한국에 오기까지 과정

대부분의 여성들은 친구, 전에 한국의 클럽에서 일했던 사람, 친척, 이웃, 지역 송출업자를 통해 한국 클럽의 일자리를 알게 됐다. 신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한 공식 광고를 보고 정보를 얻은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조사자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보통 여성들이 모집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친구, 한국 클럽에서 일한 사람, 한국과 필리핀 송출업자로부터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2단계: 지역에 있는 필리핀이나 한국 송출업자를 찾아간다.

3단계: 송출업체에서 오디션이나 면접을 본다. (어떤 경우엔 한국 클럽 주인이 이 자리에 참석해 직접 여성들을 고르기도 한다).

4단계: 송출업자가 연예인 비자(E-6)를 얻어주면 자신의 그룹과 함께 한국으로 직접 오거나 E-6 비자를 얻기 위해 제3국으로 간다 (이때 송출업자가 동행하게 되며 이들이 여성들을 위해 E-6 비자를 받아준다). 특히 이 단계에서 여성들이 단체로 움직이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은 비록 2명일지라도 항상 단체로 여행을 하는데, 이유는 전통무용단이나 음악밴드일 경우 여러 명의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한국 대사관에 이들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설득해 E-6 비자를 얻기가 쉽기 때문이다.

5단계: 한국에 도착 (현지 매니저나 클럽 주인이 공항에서 이들을 맞고, 이때부터는 한국 매니저가 이들을 관리한다).

6단계: 각 클럽으로 보내진다 (클럽으로 보내지면 한국 매니저와 클럽 주인의 관리하에 놓여진다).

3) E-6 비자

송출업체들은 필리핀 여성들을 데려오기 위해 E-6 비자(연예인 비자)를 이용한다. 이들은 여성들이 번거롭지 않도록 서류 준비와 비자 신청 등 모든 일을 도맡아 한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E-6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 조사에 참여한 70명 중 4

명만이 다른 비자로 들어왔다. 한명은 한국 남자와 결혼한 경우로 배우자 비자로 들어왔으며 다른 세명은 관광 비자로 들어왔다.

4) 경로와 연락망

E-6 비자를 받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E-6 비자를 필리핀에서 받았다. 그러나 방콕이나 홍콩 등 제 3국에서 E-6 비자를 받은 경우도 많았다. 이럴 경우 여성들은 한국인 또는 필리핀인 매니저와 함께 먼저 홍콩이나 방콕으로 가고 그들의 매니저가 E-6 비자를 받아준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중 누구도 자신이 직접 필리핀이나 제 3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E-6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 받은 경우는 없었다. 아래의 표 5는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이 (사실은 그들의 매니저들이) E-6 비자를 받기 위해 이용한 이동 경로를 말해준다. "경유 없음"은 필리핀에서 E-6 비자를 받은 경우다.

표5 - 이동 경로

이동 경로	경유없음	홍콩 경유	방콕 경유	정보없음	총계
여성수	40명	4명	15명	11명	70명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점은 한국으로 가기 위해 어떤 비용도 들지 않았거나 또는 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일단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면 월급에서 그 비용을 갚아나가야 한다.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매니저들은 1-6개월 동안 여성들의 월급에서 들어간 비용을 떼어간다. 또 하나 매력적인 점은 한국으로 오기 위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린다. 이러한 신속한 처리는 송출업체들이 서류나 비자 신청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6은 모집과정에서 여성들이 지불한 비용이다.

표6 - 송출 비용

역수	지불하지 않음	US\$50 이하	US\$51-100	US\$101-150	기타 *	정보 없음	총계
여성수	21명	5명	10명	4명	11명	19명	70명

*조사에 참여한 여성중 동두천의 클럽들에서 일하고 있는 4명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 왔다. 이들 각자는 US\$300, US\$430, US\$950, US\$1,100을 지불했다. 왜관에 있는 S 클럽에서 도망친 4명의 여성들과 평택의 클럽들에서 일하고 있는 3명의 여성들은 건강검진, 공항세, 여권비 등을 지불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역수를 밝히지 않았다.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몇명의 여성들은 가짜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 이들 중 일부는 미성년자로 나이를 속였다. 그러나 다른 몇명은 법적 나이가 되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꾸고 가짜 여권을 사용했다. 그들은 송출업자들이 가짜 여권을 만들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한국에 온 후 그녀들은 가짜 여권 비용으로 US\$300을 내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여성들은 송출업체들이 가짜 여권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커미션을 받거나 자신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가짜 여권을 만들도록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뷰한 여성들이 클럽에서 일한 기간은 다양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보통 일년 계약을 하고 6개월짜리 E-6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다. 6개월 후에는 비자를 갱신할 수 있고 그후 3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서 일년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을 채우고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여성은 많지 않다. 많은 여성들이 클럽에서 도망치거나 도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클럽 주인에 의해 강제로 본국에 보내지기도 했으며, 어떤 여성들은 다른 클럽으로 일자리를 옮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조사자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 표 7은 조사 당시의 시점에서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이 클럽에서 일한 기간을 나타낸다.

표7 - 클럽에서 일한 기간

기간	1-3개월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12개월 이상	기타*	정보없음	총계
여성수	23명	22명	4명	7명	2명	3명	9명	70명

* 동두천 클럽에서 일했던 한 여성은 3일만에 클럽을 도망쳤다. 평택의 한 여성과 동두천의 한 여성은 일주일 만에 클럽을 도망쳤다.

5. 노동 및 생활 환경

1) 월급

여성들에게 주는 월급은 클럽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월급을 합의한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송출업자들은 여성들에게 월급이 얼마인지를 알려준다. 사실 여성들은 계약서가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만을 볼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 중 몇명은 클럽에서 일하면서 합의한 월급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계약한 것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여성들은 모집 과정에서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와서 여기에 든 비용을 갚아야 했다. 이로 인해 모집과정의 매니저들은 1-6개월 동안 여성들 월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져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계약 당시 자신들이 나중에 송출 비용을 갚아야 하는지를 몰랐다고 말했다. 또 일부 클럽들은 여성들이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로, 일정 기간 (예를 들어 6개월) 월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만료시까지 보관한다. 몇명의 여성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다. 아래의 표 8과 표 9는 여성들과 송출업자가 모집 당시 합의한 월급과 여성들이 클럽에서 일하면서 실제 받은 금액을 나타낸다.

표8 - 합의한 월급

역수	US\$300 이하	US\$300-400	US\$410-600	US\$800	US\$1,000	정보없음	총계
여성수	2명	17명	34명	1명	1명	15명	70명

표9 - 실제 받은 월급

역수	US\$200-300	US\$310-400	US\$410-500	US\$600-700	받지 못함*	정보없음	총계
여성수	16명	13명	11명	4명	16명	10명	70명

* 이 여성들은 인터뷰가 이뤄질 당시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다.

2) 주스판매제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이태원, 평택, 동두천, 의정부 지역의 클럽에서 일하고 있거나 전에 일한 적이 있는 여성들이었다. 이중 일부는 왜관과 인천의 클럽에서 일하다가 도망친 여성들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이 일한 클럽의 수는 총 31개였다.

대부분의 클럽들은 주스판매제와 주스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스를 판매한 여성들에게는 일정한 액수의 커미션이 주어지는데 커미션은 클럽에 따라 다르다. 어떤 클럽들은 여성들에게 커미션으로 주스값의 10%를 주고 또 어떤 클럽들은 30%를 준다. 주스값도 클럽에 따라 다르다. 조사에 포함된 이태원과 평택의 모든 클럽들은 주스 한잔에 10,000원을 받았다. 이곳의 클럽들은 주스값의 20-30%를 여성들에게 커미션으로 주었다. 의정부 클럽들의 주스값은 다른 곳보다 비쌌다. 조사자에 의하면 여기에는 알콜성 음료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US\$12-25를 받고 여성들에게 10-20%를 커미션으로 주었다. 동두천의 클럽들은 주스값으로 US\$10-20(10,000-20,000원)을 받고 10-20%를 여성들에게 커미션으로 주었다. 대부분의 클럽에는 여성들이 최소한 팔아야 하는 양을 말하는 주스 할당제가 있고 간혹 할당제가 없는 곳도 있다. 의정부의 한 클럽은 특별히 할당량이 높았는데 이 클럽에서 한 여성이 한달에 팔아야 하는 주스할당량은 500-1,000잔이었다. 이 클럽은 여성들이 500-1,000잔을 팔 경우에는 주스값의 20%를 커미션으로, 1,500-2,000잔을 팔 경우에는 30%를 커미션으로 주었다. 동두천에 있는 대부분의 클럽들의 한달 할당량은 200-300잔이었다. 평택의 클럽들은 보통 하룻밤에 10잔(한달에 300잔)이 할당이였다. 아래에 있는 표 10, 표 11, 표 12는 주스 한잔의 가격, 여성들이 받는 커미션, 그리고 여성들이 달성해야 하는 할당량 등을 요약한 것이다.

표10 - 주스 한잔 가격

가격	US\$10/ 10,000원	US\$10/ US\$20	US\$12 -20	US\$20	US\$12-25	기타*	정보없음	총계
클럽수	19개	2개	2개	1개	1개	2개	4개	31개

* 평택의 한 클럽은 잔당 US\$12를 받았고 인천의 한 클럽은 잔당 4,000원을 받았다.

표11 - 주스판매 커미션

커미션	10%	16%	20%	25%	30%	40%	50%	정보없음	총계
여성수	11명	9명	28명	1명	14명	1명	2명*	4명	70명
클럽수	5개	2개	9개	1개	9개	1개	없음	4개	31개

*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일하는 두 여성은 매니저가 없었기 때문에 주스판매 커미션으로 50%를 받았다. 이들은 한국에 관광비자와 배우자비자로 들어왔고 자유직업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클럽에서 일하는 다른 여성은 20%의 커미션을 받았다.

표12 - 주스 할당량

할당/월	100미만	100-150	200-300	900	500-1000	할당없음	기타*	정보없음	총계
클럽수	1개	6개	8개	1개	1개	6개	3개	5개	31개

* 평택에 있는 세개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6명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채워야 할 한달 할당량이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등이라고 얘기했다. 다른 클럽들의 할당량과 비교했을 때 납득이 가지 않는 애기지만 조사자는 그들이 말한 그대로를 기록했다.

3) 바 파인(2차)과 성매매

바 파인은 손님이 클럽에 있는 여성과 밖에 나가 시간을 보내고자할 때 클럽 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바 파인은(흔히 한국에서 2차로 불리운다.) 클럽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일종의 제도로서 업주들은 이 제도를 통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조장하고 강제한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클럽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바 파인을 지불한다. 다른 말로 바 파인을 지불한 손님들과 나가는 여성들은 그들과 보통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때로 바 파인으로 여성들을 데리고 나가더라도 성관계가 아닌 그냥 얘기를 하거나 술집을 돌면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손님들도 있다. 또 때로는 클럽 여성의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인 클럽여성에게 쉴 시간을 주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바 파인을 지불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바 파인으로 나가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요된다. 그러므로 바 파인을 하는 클럽들은 공개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하는 VIP룸이나 롱타임(long time), 숏타임(short time), 오버 나이트(over night) 등의 제도가 없다 할지라도 성매매를 조장하고 성매매에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바 파인에서 여성들이 받는 커미션은 주스판매로 받는 커미션과 함께 일정액의 급료를 제외한 여성들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 때로 이 커미션은 주스판매 점수로 환산되어지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자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조사에 포함된 31개의 클럽중 바 파인이 없는 곳은 5개였으며 7개 클럽의 정보는 알 수가 없었다. 바 파인의 가격은 클럽마다 다르다. 바 파인의 기본가격은 US\$200-250 사이가 가장 많으며, 가격은 1) 주중 또는 주말, 2) 여성과 손님이 같이 보내는 시간의 길이(예를 들어 4시간, 6-7시간, 종일 등), 그리고 3) 클럽이 문을 연 동안에 또는 클럽이 문을 닫은 후에 이뤄지느냐에 따라 값이 다르며 US\$500까지 받는 클럽들도 있다. 상세한 기준이 없는 클럽들도 있고 평택의 몇몇 클럽들은 다른 곳들보다 훨씬쌌다. 각 클럽의 바 파인 실태는 조사자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 파인 액수중에서 클럽 여성들이 받는 커미션도 클럽에 따라 다르다. 조사에 포함된 여성들은 16%에서 많게는 50%까지를 받았다. 어떤 클럽들은 클럽이 받는 금액에 상관 없이 여성들에게는 일정 액수만을 커미션으로 주기도 했다.

조사에 포함된 31개 클럽중 동두천에 있는 6개 클럽과 이태원에 있는 1개 클럽에 VIP룸이 있었다. 이중 동두천에 있는 2개 클럽에는 룡타임, 솟타임, 오버나이트 등의 공식적인 성매매제도가 있었다. VIP룸은 보통 클럽 위층에 있는 개인방으로 손님들은 돈을 내고 여성과 이곳에서 단독으로 일정한 시간을 보낸다. 주로 성관계가 이뤄진다.

6. 클럽 규칙, 벌칙, 폭행

1) 노동시간

여성들은 보통 주중에는 (월요일-목요일) 7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금요일-일요일) 11시간 일한다. 지역마다 한 두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클럽들은 주중에는 보통 오후 5-6시 사이에 문을 열고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문을 닫는다. 그리고 주말에는 오후 2-4시 사이에 문을 열고 새벽 1-3시 사이에 문을 닫는다. 일부 클럽들은 미군들이 통행금지 시간이 돼 (주중에는 밤 12시, 주말에는 새벽 1시) 기지로 돌아가고 나면 다른 국적의 손님들을 받기도 한다. 이럴 경우 클럽들은 새벽 2-5까지 영업을 한다. 또 바 파인으로 나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위에서 언급한 시간보다 길다. 또한 대부분의 클럽들이 한달에 1일만 휴일을 허락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1개월 총 노동시간은 훨씬 길어진다.

2) 벌칙과 폭행

클럽들은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벌칙을 적용한다. 여성들은 늦거나, 지각할 때, 근무중 취했을 때, 경찰이나 출입국 관리소 직원과 얘기했을 때 등의 경우에 벌금을 내야하거나 업주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행을 당한다. 클럽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각과 결근이다. 대부분의 클럽들은 여성들이 결근을 했을 때 US\$2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지각의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자유시간을 줄이는 등의 벌칙을 적용한다. 동두천과 평택에 있는 대부분의 클럽들은 결근했을 경우 여성들에게 US\$2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주스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도 한달에 1일 있는 휴일을 주지

않거나 벌금을 부과했다. 동두천에 있는 대부분의 클럽들이 이 벌칙을 적용하고 있었다. 손님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근무중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웠을 때, 다른 클럽 직원과 얘기했을 때도 벌금이 부과되었다. 벌금을 부과하거나 자유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 가장 흔한 것은 언어적 폭력이었다. 클럽이 정한 규칙들을 어겼을 때 가장 흔하게 이뤄지는 것이 클럽 주인들의 언어적 폭력이었다고 때로는 방에 감금하는 등의 신체적, 심리적 폭력이 가해지기도 했다.

손님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클럽 여성들은 클럽 안에서 손님들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바 파인으로 나갔을 경우 성적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7. 건강, 알콜 중독, 약물 남용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성병검사나 전염성 질환(간염이나 결핵)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건강검진이 성병이나 전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되고 있는 점은 이 검진이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라기보다는, 안전한 성행위를 위해서(미군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정기검진을 받은 경우가 없었다. 조사에 포함된 클럽중 동두천에 있는 1개 클럽만이 두달에 한번 업주의 부담으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일년에 한번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클럽도 있었다. 정기검진을 실시하는 클럽도 때론 여성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업주가 일단 부담하고 여성들의 월급에서 비용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여성들은 알콜 중독에 가까운 상태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근무가 시작하기전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클럽에서 일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술을 마시는 것이 수치심을 없애주고 용기를 줘 클럽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약물 남용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여성중 일부가 동료들의 약물 중독에 대해 얘기했다.

8. 남자친구와 손님

1) 남자친구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자친구가 있었다. 이들의 남자친구는 대부분이 미군이었고 이들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남자친구들은 클럽여성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준다.(예를들어, 필리핀에 있는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거나 여성들에게 음식과 생필품 등을 사준다.) 남자친구들은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여자친구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주인에게 바 파인을 지불하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간다. 또 클럽 안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손님들에게 주스를 팔지 않아도 되도록 다른 손님들 대신 여자친구에게 주스를 사주기도 한다. 남자친구는 클럽을 탈출하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도망친 여성들 중 많은 수가 남자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클럽을 도망쳤다.

2) 손님

클럽의 손님들은 대부분이 미군들이다. 하지만 미군들만 받는 클럽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클럽들이 다른 국적의 손님도 함께 받는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미군 손님들을 훨씬 선호했다. 여성들은 많은 미군들이 2차를 원할 경우, 여성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며, 2차를 나갈 경우에도 여자가 거부할 경우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떤 미군들은 처음부터 성관계가 아닌 대화 상대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국적 손님들의 경우 항상 성관계를 원한다고 말했다. 아래의 표 13은 클럽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국적분포를 말해준다.

표13 - 손님

국적	미군*	한국인*	미군과 한국인	미군과 필리핀인	미군, 한국인, 필리핀인	미군, 한국인, 다른 국적인**	앞에서 언급한 모든 국적	총계
클럽 수	8개	1개	6개	3개	6개	2개	5개	31개

* 미군만 또는 한국인만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평택에 있는 3개 클럽과 동두천에 있는 5개 클럽은 미군의 출입만을 허용했다. 이태원의 1개 클럽은 한국인만을 위한 클럽이었다.

**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란 주로 이주 노동자들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러시아 등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을 말한다. 그러나 조사에 포함된 클럽들중 평택의 1개 클럽과 이태원의 1개 클럽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은 물론 유럽인들과 일본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9. 생활

1) 숙소와 음식

여성들의 거주 형태에는 대체적으로 두가지가 있었다. 한가지는 클럽 위층에 있는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클럽에서 가까운 곳에 클럽 주인이 얻어준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였다. 모두 기본적인 취사도구와 생활도구만 갖춰진 상태이고 조그만 방에서 여러명이 살거나 침대 하나를 두명이 쓰는 경우가 많았다. 주거비용은 클럽 주인이 부담했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은 클럽 주인이 내는 경우도 있고 여성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비는 클럽 주인이 일정한 금액을 주거나 직접 음식을 사다주는 경우가 있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식비나 주인이 사다주는 음식이 충분치 않아서 추가로 자신들의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사다주는 음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2) 자유시간

여성들은 주로 클럽이 문을 닫는 오후 시간에 (낮 12시부터 5시 사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자유시간은 12-3시, 1-5시, 1-3시 등 클럽마다 달랐다. 그러나 주말에는 클럽들이 일찍 문을 열기 때문에 자유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클럽들은 자유시간에 여성들이 동행없이 나가도록 허용하지만 어떤 클럽들은 동행없이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상황에 따라 자유시간이 제약되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안전문제로 평택의 클럽들이 문을 닫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있는 상황일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때는 클럽들이 자유시간에도 여성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클럽에 감금시켜 놓았다.

10. 도망

클럽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도망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조사에 참여한 70명의 여성중 38명이 클럽에서 일하다 도망친 여성들이었다. 이들이 도망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제일 큰 이유는 클럽에서의 일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클럽에서 도망치는데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이유는 남자친구였다. 남자친구들은 이들이 도망치도록 도와주거나 권고하기도 하고 또는 여성들이 도망치는 것을

원할 경우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고 은신처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많은 여성들이 도망간 후의 문제에 대해 남자친구의 도움을 의지하고 도망친 경우가 많았다. 또 클럽보다는 공장에서 일하기를 위해 도망치거나 클럽과의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필리핀으로 돌아가기 싫어 도망친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클럽 환경이 도망치는 일차적 이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도망친 여성들은 대부분 미군 남자친구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거나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여성들이 도망치는 이유는 꼭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클럽을 빠져나오는 것이 1차 목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 계속 머물면서 일하고 싶어했다. 실제로 동두천의 S 클럽에서 도망친 후 필리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던 11명의 여성들중 한명은 필리핀으로 되돌려 보내지기 직전 도망쳤다. 또 조사자들에 의하면 필리핀으로 돌아간 여성들도 가난과 고용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다시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도망친 여성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조사자 보고서와 부록에 있는 사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11. 장래 계획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 중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은 빨리 계약이 끝나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 이들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다면 필리핀으로 돌아가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떤 여성들은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싶어하기도 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망친 여성들의 대부분은 한국에 계속 머물면서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미군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많은 여성들이 클럽에서 도망친 후 수개월씩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필리핀으로 돌아가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양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 만료 시점에 필리핀으로 돌아가기 싫어 클럽에서 도망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필리핀으로 돌아간 여성들도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는 돌아간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으면 한국으로 돌아오

겠다고 말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12. 결론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괄적 보고의 목적은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기지촌 클럽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대략의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표들과 각 부문에 대해 언급한 것들은 모두 평균치의 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통계와 서술이 조사자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자 보고서를 보지 않고는 자세한 상황과 개인간의 차이를 이해하기 힘들다.

IV. 지역별 보고

조사 지역을 서울, 경지 지역의 기지촌 지역, 4군데(이태원, 평택, 의정부, 동두천)로 한정시켰다. 우리는 보다 넓은 지역과 보다 많은 여성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싶었지만, 지방까지 조사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조사 기간과 비용의 한계로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지역은 이태원과 평택을 묶어서 한 사람이 조사하였으며, 다른 조사원 2인은 동두천과 의정부를 맡았다. 조사 시작과 기간은 각각 조금씩 달랐으며, 지역과 미군 부대의 특성에 따라 여성들의 상황이나 근무 조건 등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들을 보다 잘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 보고를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지역별 보고는 지역 조사자들에 의해 씌여졌다. 기록은 클럽 안에서 만난 여성들과 도망 친 여성들, 필리핀으로 돌아간 여성들을 나누어서 각각 작은 제목들에 따라 상황을 기록하였다.

1. 이태원과 평택지역 보고

1. 이태원 및 평택 지역 소개

(1) 이태원동

미 8군주둔지와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유명한 이태원은 서구식 술집과 나이트클럽, 쥬스바 (남자들이 종업원을 사기 위해 무척 비싼 음료수를 사는 곳) 그리고 악명높은 사창가로 유명하다. 또 이태원에서는 호스티스바와 룸살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곳은 술을 마시는 동안 여성들과 함께 마시기를 원하는 남성들이 간다. 어린 여성들이 매우 친절하게 고객들을 상대하며, 한 번에 쉽게 100만원을 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좀 다른 개념의 쥬스바는 미군 기지 근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곳은 대부분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며, 여자를 사기 위해 무척 비싼 음료비용을 지불한다. 여자를 사기 위해서는 4-5잔의 음료수를 사면 된다.

대다수의 국가처럼 한국에서도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이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대략 2백만명의 여성이 성매매, 바걸, 댄서, 술집종업원, 이발소종업원과 커피숍 종업원의 형태로 유흥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2) 송탄지역

송탄의 기지촌은 미군 기지중 가장 큰 K-55 오산 공군기지 앞에 형성되어 있으며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거리와 업소가 더욱 화려하게 바뀌었다. 외국인 전용클럽에는 한국 여성 1-5명이 카운터나 웨이트리스로 고용되어 있고 그 외 대부분은 필리핀과 러시아 여성들이다. 외국인 여성들은 쇼타임에 비키니와 같은 무대의상을 입고 춤을 춰야 한다. 다른 기지촌에 비해 한국인 출입이 자유로워서 서울에서 온 성 구매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지역엔 56개의 업소와 526명 이상의 여성들이 고용되어 있다.

또 다른 기지촌은 캠프 Humphreys 정문 앞에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외국인 전용클럽 외에도 관광호텔이나 단란주점 등이 섞여서 큰 유흥가를 형성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클럽에는 한국여성 1-2명이 카운터에 고용되어 있고 그외 대다수는 러시아와 필리핀 여성들이다. 기지촌 경기가 안 좋아진 후 후 이곳에는 한국인 남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새움터 실태 조사 당시 (2001년 8월 -12월) 많은 한국 남성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한 클럽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는 여성에 의하면 몇년 전까지는 미군들의 반대로

내국인의 출입이 통제되었으나 지금은 경기가 나빠서 업주들이 클럽여성들에게 한국남성들에게 술접대를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송탄에서도 새오피스가 일을 하고 있다. 송탄의 새오피스는 2001년 가을에 문을 열었으며 현재는 기지촌 여성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관련된 모든 여성을 상담하고 있다. 위기 구조상담을 중심 사업으로 삼고 있다. 전화나 여러 통신 수단을 통해 접수된 일들을 상담하며 그에 따른 지원(빛 해결, 의료, 법률 문제 등)을 해준다. 클럽에서 도망친 여성들을 위한 임시보호소도 운영하고 있다. 보호소에서는 미술치료를 하고 있으며 공예품 등도 만들고 있다.

또 다른 민간단체로는 햇살(Sunshine)센터가 있는데 올해 5월에 문을 열었다. 주로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 이 자료는 새오피스 조사자료를 참조하였다.

2. 조사방법

(1) 이태원

조사자는 먼저 필리핀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클럽들을 찾기 위해 이태원을 방문했다. 일단 필리핀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클럽들을 알아낸 후 조사자는 주말에 클럽들을 찾아갔는데 이는 주말에 손님이 더 많기 때문이었다. 조사자는 용산에 있는 미군 연락자와 함께 주말에 클럽들을 돌아봤다. 조사자는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지켜보고 얘기를 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스를 사주곤 했다. 일단 클럽 여성들과 친해지면 조사자는 그들이 인터뷰할 준비가 될 때까지 몇 번 더 그들을 찾아가곤 했다. 그 외에도 조사자는 수시로 그들에게 전화를 하고 밖에서 만나 점심을 사주곤 했다. 서너번 만난 후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운이 좋은 편이고 대부분의 경우 막상 인터뷰를 하려면 클럽 여성들은 이를 피하곤 했다. 그래서 조사자는 클럽안 상황에 대해 알기 위해 순전히 그들의 협력과 의지에 기대는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조사자의 견해로는 수집된 자료들이 주관적인 것일 수밖에 없으며 이태원 지역의 어느 클럽 여성도 공식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태원 조사의 이점은 이태원이 서울 안에 있기 때문에 조사자의 집에서 가까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또한 조사자는 하루 내내 그곳에 머물거나 숙박비를 들일 필요도 없었다. 또 이태원은 엄격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클럽들이 국적이거나 직업에 상관없이 손님들

의 출입을 허용했다.

(2) 평택

이태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자는 먼저 수차례에 걸쳐 평택을 둘러보았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관계로 조사자는 2-3일간 평택에 머물곤 했다. 용산에 있는 조사자의 미군 연락자가 평택까지 차를 태워주거나 클럽에 같이 가주곤 했다. 일단 필리핀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클럽들을 발견하게 되면 같은 클럽을 몇번씩 찾아가곤 했다. 평택에 있는 대부분의 클럽들이 신분증이 있는 미군이나 미군 가족들의 출입만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 경우 조사자의 미군 연락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평택에는 두개의 필리핀 식당이 있는데 클럽이 문을 닫는 낮시간에 조사자가 주변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됐다. 또한 이곳에서는 낮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 오거나 남자 친구와 오는 클럽 여성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여러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했다. 클럽 여성들은 말은 많지만 아주 조심스러워서 처음 만난후 곧바로 클럽 상황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용산에 있는 조사자의 미군 연락자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조사자는 새로운 미군 연락자를 찾아야 했다. 조사자는 클럽에 있는 여성을 통해 새로운 미군 연락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조사자가 주말마다 만나면서 친해진 여성들의 남자친구들이었다. 새로운 미군 연락자들은 많은 클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됐고 때론 어떤 클럽들에서 필리핀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지 알려주기도 했다.

평택에서는 네명의 여성들이 공식 인터뷰를 하는데 동의했다. 조사자는 이들을 인터뷰한 후에도 그들의 상황을 알기 위해 주중에 전화를 하곤 했다. 이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함으로써 조사자는 그곳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었다. 조사자는 보통 몇 번의 만남과 식사를 한 후 인터뷰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조사자는 또 식당 주변에서 클럽에서 일하다가 도망친 여성들을 만나기도 했다.

(3) 조사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

실태조사를 하면서 조사자가 직면했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어떻게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구별되지 않고 어울릴 수 있는냐는 것이었다. 조사자가 미군 연락자와 함께 다닌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남자친구와 온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불리한 점이 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클럽 여성들이 여자를 데리고 온 남성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이었다. 조사자와 친해진 한 여성은 후에 조

사자에게 여자와 들어온 남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왜 조심하는지 말해줬다. 첫째는 같이 온 여자가 여자친구나 동거인일 수 있으며, 둘째는 그 여자가 다른 클럽 여성으로 근무 중 바 파인(bar fine)/클럽 여성이 손님과 클럽의 합의에 따라 손님과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이 경우 손님은 클럽에 일정액을 지불하고 후에 클럽 여성은 이중 일정액을 커미션으로 받는다)에 의해 남자와 술집을 전전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클럽 여성들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얘기를 듣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들의 배경을 알고 친구가 돼야 했다. 더 나아가 그들과 친해지는 것은 조사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도전하는 일이기도 했다.

조사자는 혼자서 클럽에 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고 그 때문에 남자 동행이 필요했다. 여자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남자들이 주로 찾는 클럽에 조사자 혼자서 간다는 것은 조사자가 남자의 접근을 받기 위해 그곳에 간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 다른 말로 조사자가 혼자 클럽을 맴도는 것은 곧 남자들에게 접근하도록 하는 여지를 주는 것임을 알았다.

용산에 있는 미군 연락자가 개인적 이유로 미국으로 간 후 조사는 지지부진해졌다. 평택에 있는 새 연락자를 찾긴 했지만 미군정보국이 조사자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테러에 대한 우려로 미군정보국이 주말에 평택을 찾는 조사자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것 같았으며 조사자의 미군 연락자들은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조사자와 동행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조사자에게 미군정보국이 조사자를 직접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사자를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군정보국은 미군 연락자들을 조사했고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한 우려로 앞으로 연락자들은 조사자와 동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자가 직면했던 가장 어려운 경험은 클럽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충격이었다. 조사자는 여성들의 충격적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받은 충격과 같은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조사자는 악몽을 꾸거나 꿈에 이상한 형상들을 보곤 했다. 이러한 경험이 조사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영향을 미쳤다.

조사자가 위험하다고 느낀 또 다른 점은 미군 연락자와의 관계였다. 조사자는 도와줄 결혼한 사람이거나 여자친구가 있는 경우의 미군 연락자를 찾았는데 이 경우엔 감정적

인 유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군 연락자가 독신인 경우에는 관계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이들과 끊임없이 연락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사자가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또한 조사자에게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조사자는 이러한 조사에서 요구되는 위험과 압력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한다. 조사자는 이러한 조사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심리적, 감정적 힘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조사자는 왜 이러한 조사가 필요한지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진심으로 공감해야 한다. 조사자는 조사 참여자들과 부드럽게 인간적으로 어울리는 것을 배워야 하고 보고서를 내기 위한 차갑고 비인간적인 자료만을 원하기보다는 참여자들에게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4) 조사 기간

	이 태 원	송 탄
조사 시작	2002년 7월 10일	2002년 8월 3일
조사에 쓰인 시간	- 7월10일, 13일, 18일, 20일, 27일; 8월 1일, 18일; 9월 27일; 10월 4일 11일; 11월 1일 3일 - 위에 있는 날짜는 클럽을 찾거나 클럽여성들과 밖에서 만난 날짜들이다. 어떤 여성들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 8월 3일, 4일, 10일, 11일, 12일, 24일, 25일, 26일; 9월 6일-9일, 13일-16일, 20일-23일, 28일-30일; 10월 18일-21일; 11월 2일 - 위에 있는 날짜는 클럽을 찾거나 클럽여성들과 밖에서 만난 날짜들이다. 어떤 여성들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조사 종료	2002년 11월 3일	공식적으로 2002년 10월 21일에 조사가 끝났지만 11월 2일과 클럽들이 문을 닫은 10월 28일-11월 10일 사이에도 현장에 갔다.

(5) 찾아간 클럽들

이 태 원	송 탄
	- Y 클럽: 한국, 러시아 여성들
	- U 클럽: 러시아, 한국, 몽고 여성들
	- O 클럽: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
	- A 클럽: 필리핀 여성들
- U 클럽: 필리핀, 러시아, 몽고, 한국 여성들	- P 클럽: 필리핀 여성들
- K 클럽: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	- M 클럽: 필리핀 여성들
- R 클럽: 러시아 여성들	- V 클럽: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
- M 클럽: 한국 여성들	- H1 클럽: 필리핀 여성들
- G 클럽: 러시아 여성들	- S1 클럽: 필리핀 여성들
- P 클럽: 한국 여성들	- M1 클럽: 러시아 여성들
	- M2 클럽: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
	- G 클럽: 러시아 여성들
	- H2 클럽: 필리핀 여성들
	- S2 클럽: 필리핀 여성들

A. 클럽 안에서 만난 여성들

1. 조사 참여 여성들의 신상 자료

다음 15명의 여성들은 평택과 이태원의 클럽 안에서 만난 여성들이다. 15명중 네명이 공식 인터뷰에 동의했으며 이들은 설문지를 작성하고 조사자는 이들과의 인터뷰를 녹음했다. 공식 인터뷰에 동의한 여성들에게는 각각 2만원의 인터뷰 비용이 지불됐다. 나머지 11명에 대한 자료는 클럽이나 밖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뤄진 비공식적 인터뷰를 통해 수집됐다. 조사자는 이들중 몇명을 클럽이나 밖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두 세차례 만났고 공식 인터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수집된 자료는 제한적이다. 자료가 아주 제한적인 일부 여성들의 경우 조사자는 이들을 클럽에서 한번 만났지만 따로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클럽에서 일할 때는 이들이 항상 바쁘거나 조사자와 얘기하기를 꺼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사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1 - 신상 자료

이름	나이	최종학력	출신지	종교	결혼여부	자녀
1. 진 *	26	고등학교	팜판가	가톨릭	결혼	3남 1녀
2. 레나 *	23	초등5학년	불가칸	가톨릭	별거	1남
3. 페이스 *	26	고등학교	불가칸	가톨릭	결혼	1남 1녀
4. 미치 *	25	고등학교	불가칸	가톨릭	미혼	1녀
5. 잉그리드 **	25	고등학교	비콜	가톨릭	미혼	없음
6. 미라 **	21	고등학교	팜판가	가톨릭	미혼	없음
7. 제트 **	22	대학교	리잘	가톨릭	미혼	1녀
8. 패니 **	23	대학교	레이테	가톨릭	미혼	없음
9. 리카 **	23	대학교	마닐라	가톨릭	미혼	1남
10. 지나 **	26	고등학교	카비테	가톨릭	미혼	1남
11. 트레이시 **	26	고등학교	불가칸	가톨릭	미혼	1남
12. 벨라 **	28	대학교	세부	가톨릭	별거	없음
13. 테스**	25	고등학교	팜판가	가톨릭	미혼	없음
14. 채트 **	18	고등학교	라구나	가톨릭	미혼	없음
15. 티나 **	25	고등학교	리잘	가톨릭	결혼	2남

* - 공식 인터뷰 ** - 비공식 인터뷰
 평택지역
 이태원 지역

2. 경로, 연락망, 이주 동기

2.1 한국 이주 동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외국으로 가는 다른 많은 여성들처럼 조사자가 만난 여성들도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고 싶어했다. 송출업체(recruitment agency)를 통해 오지 않은 경우는 15명중 두명에 불과했다. 리카는 필리핀의 클럽에서 일하다가 만난 미국 남자친구의 초청으로 한국에 있다. 남자친구가 한국에 오는 비용을 댔으며 그녀는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벨리는 통일교인이었던 한국남자와 결혼해 배우자 비자로 한국에 왔다. 그녀는 남편의 가족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자 남편 집을 나와 일자리를 구했다. 필리핀의 높은 실업률과 고용기회의 부족이 조사에서 만난 여성

들을 외국으로 내몰았고, 그들은 높은 교육수준이나 경험이 필요치 않은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게됐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클럽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송출업체는 친구나 전 클럽 종사자들을 통해 이 여성들을 모집했다. 실업률이 높은 작은 마을에 연락망을 구축해 쉽게 여성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 입소문과 친구들의 소개가 낮은 교육수준의 어린 실업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줬다. 15명중 네명은 전에 일본의 클럽에서 많은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이들은 일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빨리 돈을 벌기를 원했다. 송출업체들은 이들에게 한국의 노동환경이 좋다고 말했지만 상황은 반대였다. 관광비자를 통해 한국에 온 리카의 경우를 제외하고 송출업체들은 한국에 대해 이들 모두를 속였다.

처음 클럽에서 일하게 된 다른 여성들도 요구조건이 많은 일본에 가기보다는 보다 쉽고 빠른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동기는 한국에 오기 위해 송출업체에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됐고, 신청하는데 서류상 까다로운 과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송출업체들이 모든 서류와 필요한 일들을 처리했고 높은 월급과 좋은 노동조건을 약속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알지 못한 채 한국에 오게됐다.

2.2 한국에 오기까지 과정

보통 외국 유흥업소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거나 불법 송출업체에 의해 이뤄지는 직업 알선은 신문광고보다는 입소문으로 알려진다. 대도시에서 송출업자를 아는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송출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또는 전에 외국 클럽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자신들을 알선했던 송출업체와 자신의 마을에 있는 어린 실업 여성들을 연결해 주기도 한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이 어떤 송출업체나 송출업자와 연결돼 있는지를 알기란 쉽지 않았다. 2명의 여성은 M사에 신청을 했고 전에 필리핀에서 미스터 G 라는 송출업자와 연락했다고 말했다. 미스터 G는 전에 필리핀에서 사기죄로 구속된 적이 있으며 자주 한국에 와서 여성들이 받는 월급 중에서 일부를 (3개월 또는 6개월간) 받아가곤 했다.

조사자가 찾아낸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등록된 송출업체는 K사로 소유자는 G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송출업자인 미스터 B이다.

대부분의 경우 필리핀 송출업자들은 클럽 여성들을 모집하기 위해 한국 송출업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 송출업자들은 한국 송출업체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로 필리핀에 가 그곳 송출업체와 연락하고 필리핀 송출업자들과 협상하는 일을 한다. 일단 여성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업자들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고 이들이 한국의 클럽들에 여성들을 배분한다. 그러므로 한명의 한국 송출업자가 여러 클럽에 있는 여성들을 관리하게 된다. 때로 필리핀 송출업자가 이들 여성들이 적절하게 분배됐는지 살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단 여성들이 필리핀을 떠나면 필리핀 송출업자들과 연락이 끊긴다. 일부 여성들은 전적으로 한국 송출업자와 클럽 주인들의 처분에 의존하게 된다. 만약 송출업체가 불법이면 여성들은 한국 클럽에서 요구하는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계약서를 보지 못했거나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로 쓰여진 계약서만을 봤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계약서를 설명해주는 송출업체는 거의 없으며 여성들도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표2 - 송출 비용

이름	비용 내용	액 수
1. 진 *	여권 건강검진 등	650 필리핀 페소 2,000 필리핀 페소
2. 레나 *	여권, 건강검진, 기타 비용	7,000 필리핀 페소
3. 페이스 *	계약금	5,000 필리핀 페소
4. 미치 *	없음	
5. 잉그리드 **	없음	
6. 미라 **	여권	말하지 않음
7. 제트 **	없음	
8. 패니 **	없음	
9. 리카 **	여권, 비행기표, 기타 비용	말하지 않음
10. 지나 **	여권, 기타 서류	말하지 않음
11. 트레이시 **	없음	
12. 벨라 **	없음	
13. 테스 **	없음	
14. 채트 **	없음	
15. 티나 **	없음	

* - 공식 인터뷰 / ** - 비공식 인터뷰 / 평택 지역, 이태원 지역

2.3 한국 이주 경로와 연락망

15명중 13명은 연예인비자(E-6)로 한국에 왔다. 두명 중 한명은 관광비자로, 다른 한명은 배우자비자로 왔다. 두명은 방콕을 통해 한국에 왔다. 관광비자로 와 있는 리카는 먼저 방콕으로 가 그곳에서 비자를 받았다. 미라는 방콕으로 가 동행한 팜팡가에서 온 자신의 송출업자의 도움으로 연예인비자를 받았다. 그 송출업자는 한국에 오지는 않았다. 다른 13명은 직접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표3 - 경로와 연락망

이름	클럽	한국 도착	클럽에서 일한 기간(1)	이동 경로	현재상황(2)	현 거주지 (3)
1. 진*	A	2002. 3. 20	5개월	경유없음	같은 클럽에서 일함	평택
2. 레나 *	A	2002. 3. 20	5개월 (클럽을 두번 옮김)	경유없음	왕십리 공장에서 일함 (인터뷰후 두개 클럽으로 보내졌다가 도망)	서울
3. 페이스 *	O	2002. 5. 25	3개월 (현재 새클럽에 있음)	경유없음	H 클럽으로 옮겨 일하고 있음	평택
4. 미치 *	V	2002. 3. 20	5개월	경유없음	2주간 (10월 28일-11월 11일) 클럽이 문을 닫은 후 필리핀으로 돌아감	필리핀
5. 잉그리드 *	A	2001. 12.	9개월	경유없음	9개월 일한후 2002년 9월 9일 필리핀으로 돌아감	필리핀
6. 미라 **	S	2002. 5. 31	5개월	방콕경유	아직 같은 클럽에 있음	평택
7. 제트 **	M	2002. 8. 14	1개월	정보없음	아직 같은 클럽에 있음	평택
8. 패니 **	G	2002. 7. 4	2개월	경유없음	2주간 클럽이 문을 닫자 11월 1일 강제로 돌려 보내짐	필리핀
9. 리카 **	U	2002. 5.	2개월	방콕경유	주말에만 일하고 미국 남자친구와 삼	이태원
10. 지나 **	U	2002. 7.	4개월	경유없음	아직 같은 클럽에서 일함	이태원
11. 트레이시 **	M	2002. 7. 14	2개월	정보없음	아직 같은 클럽에서 일함	평택
12. 벨라 **	U	2001. 10.	2개월	경유없음	임신하자 미군 남자친구와 살기위해 클럽을 떠남	서울
13. 테스 **	P	2001. 8. 18	12개월	경유없음	2001년 8월 18일 계약이 끝나 필리핀으로 돌아감	필리핀

14. 채트 **	O	2002. 5. 25	3개월	경유없음	한국 프로모터에게 잡혀 다른 클럽으로 보내짐. 현재 M 클럽에서 일함	평택
15. 티나 **	S	2002. 4. (두번째 음)	4개월	정보없음	아직 같은 클럽에서 일함	평택

* - 공식 인터뷰
 ** - 비공식 인터뷰
 평택 지역
 이태원 지역

메모: (1) 클럽에서 일한 기간은 공식 인터뷰의 경우 인터뷰가 이뤄진 시점에서의 기간을 말하고, 비공식 인터뷰의 경우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의 기간을 말한다.

(2) 조사 종료 시점에서의 상황
 (3) 조사 종료 시점에서의 거주지

3. 노동 및 생활 환경

3.1 급여와 재정 상황

같은 클럽에서 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받는 급여가 다르다. 급여가 다른 이유는 해당 여성이 초보냐 또는 클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 여성이 클럽 매니저/프로모터의 친구이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송출업체를 통해 왔느냐 등등에 따라 다르다.

클럽 주인들은 한국에 있는 여성들의 매니저나 프로모터들을 통해 급여를 지불한다. 그때, 송출업자는 여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때 지출된 비용을 여성들의 월급에서 댈다. 여성들의 급여에서 떼어가는 액수와 그 기간은 1-6개월로 각각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클럽 주인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급여를 매니저/프로모터가 압류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클럽에서 도망쳤을 경우 압류된 급여들은 고스란히 매니저/프로모터에게 가게 되며, 때로 클럽 주인들은 도망친 여성들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여성들에게 급여를 다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표4 - 급료

이름	계약상 급료	실제 수령 금액	지불 형태	강제 저축
1. 진 *	US\$300	260,000원	현금	6개월간의 월급이 보관 중이고 계약 만료후 받게될 예정
2. 레나 *	US\$300	260,000원	현금	6개월간의 월급이 보관 중이고 계약 만료후 받게될 예정
3. 페이스 *	US\$350	260,000원	현금	없음
4. 미치 *	US\$375	260,000원	현금	없음
5. 잉그리드 **	말하지 않음	350,000원	현금	없음
6. 미라 **	말하지 않음	340,000원	현금	없음
7. 제트 *	말하지 않음	375,000원	현금	없음
8. 패니 **	말하지 않음	400,000원	현금	없음
9. 리카 **	말하지 않음	750,000원	현금	없음
10. 지나 **	US\$800	아직 받지 않음	아직 받지 않음	4개월의 급료가 은행에 보관중
11. 트레이시 **	말하지 않음	375,000원	현금	없음
12. 벨라 **	말하지 않음	750,000원	현금	없음
13. 테스 **	350,000원	350,000원	현금	없음
14. 채트 **	US\$350	260,000원	현금	없음
15. 티나 **	말하지 않음	320,000원	현금	없음

* - 공식 인터뷰 / ** - 비공식 인터뷰 / 평택 지역, 이태원 지역

3.2 쥬스 할당제와 성매매 (바 파인과 VIP룸)

쥬스 할당제

쥬스를 팔고 클럽 여성들이 받는 커미션은 클럽에 따라 다르다. 여성들에게 좋은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음식값도 넉넉히 주는 클럽들의 경우 종종 적은 커미션을 준다. 한편 시설이 형편없고 지저분하며 정기적으로 식료품도 제공하지 않는 클럽들의 경우 쥬스

스 판매에 대해 높은 커미션을 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15명 가운데 두명 만이 쥬스 한잔당 2천원의 커미션을 받았다. 다른 두명의 여성들은 송출업체에 소속되지도 않고 관광비자와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프리랜서로 일했기 때문에 50%를 커미션으로 받았다.

쥬스 한잔당 받는 평균 커미션은 3천원이다. 쥬스를 주문한 여성들은 티켓이나 칩을 받고 그것을 모았다가 돈과 교환하게 된다. 매일 클럽이 문닫기 전 여성들은 티켓이나 칩을 세어서 바텐더에게 주고 바텐더가 이를 기록한다. 클럽에 따라 매주 또는 한달에 두번 이를 교환하기도 한다. 어떤 클럽들은 10일 단위로 커미션을 계산하기도 한다. 어떤 클럽 여성들은 쥬스 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벌금으로 커미션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태원 클럽들은 할당제가 없지만 평택에 있는 대부분의 클럽에는 매일밤 또는 월 단위로 채워야 할 할당량이 있었다.

표5 - 쥬스 할당제

이름	쥬스 한잔 값	잔당 커미션	팔아야 할 쥬스 할당량
1. 진 *	10,000원	3,000원	하루 열잔
2. 레나 *	10,000원	3,000원	하루 열잔
3. 페이스 *	10,000원	3,000원	한달 250,000원
4. 미치 *	10,000원	2,000원	할당 없음
5. 잉그리드 **	10,000원	3,000원	하루 열잔
6. 미라 **	10,000원	3,000원	한달 200,000원
7. 제트 **	10,000원	3,000원	할당 없음
8. 패니 **	10,000원	3,000원	하루 열잔
9. 리카 **	10,000원	5,000원	할당 없음
10. 지나 **	10,000원	2,000원	할당 없음
11. 트레이시 **	10,000원	3,000원	할당 없음
12. 벨라 **	10,000원	5,000원	할당 없음
13. 테스 **	10,000원	3,000원	한달 120,000원
14. 채트 **	10,000원	3,000원	한달 250,000원
15. 티나 **	10,000원	3,000원	한달 300,000원

* - 공식 인터뷰 / ** - 비공식 인터뷰 / 평택 지역, 이태원 지역

바 파인 (Bar Fine)

조사자는 평택 클럽에서는 VIP룸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태원에서는 VIP룸이 있는 두개의 클럽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필리핀 여성들은 없고 러시아 여성들만 있었다. 바 파인은 손님이 클럽 여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클럽 주인에게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금액은 소요되는 시간과 주중 어느 날이냐에 따라 2-300달러 정도로 다르다. 금요일과 토요일의 주말에는 좀 더 비싸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주중에는 더 싸다. 클럽이 문을 닫기전 바 파인을 나갈 경우 가격이 비싸고 클럽이 문을 닫은 후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 그러나 클럽마다 바 파인으로 여성들을 내보내는 경우가 다르다. 어떤 클럽들은 클럽이 문을 닫기전 나가는걸 허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클럽들은 클럽이 문을 닫은 후에 나가는걸 허용한다. 바 파인을 나갔을 경우 클럽 여성들이 받는 커미션은 손님이 지불하는 금액의 30% 정도이다.

바 파인으로 여성들을 데리고 나갈 경우 손님들은 보통 성관계를 기대한다. 이때 여성들은 아무런 보호도 기대할 수 없고 전적으로 손님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 클럽 여성들에 의하면 모두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미군들이 그렇다고 한다. 어떤 미군들은 단지 외로워서 여성들과 같이 나가 술을 마시기를 원하기도 한다. 어떤 여성들은 클럽에서 벗어나 쉬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바 파인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표6 - 바 파인과 성매매

이름	바 파인 (손님 지불액수)	커미션	VIP룸	성매매		
				롱타임	숏타임	밤새기
1. 진*	US\$300 (금-토요일) US\$200 (일-목요일)	99,000원 66,000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 레나*	US\$300 (금-토요일) US\$200 (일-목요일)	99,000원 66,000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 페이스*	US\$250 (근무시간내) US\$150 (클럽닫은후)	손님이 지불한 돈의 30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 미치*	US\$250	70,000원, 주스 판매 칩으로 바뀌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5. 잉그리드**	US\$300 (금-토요일) US\$200 (일-목요일)	바 파인에 나가지 않아 클럽에 대가를 지불함	없음	없음	없음	없음
6. 미라**	US\$200	바 파인에 나가지 않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7. 제트**	말하지 않음	바 파인에 나가지 않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8. 패니**	US\$250-300	25개 주스판매 칩 = 70,000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9. 리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0. 지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1. 트레이시**	말하지 않음	말하지 않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2. 벨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3. 테스**	US\$200	US\$80 또는 90,000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4. 채트**	US\$200	60,000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5. 티나**	US\$200	60,000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 공식 인터뷰

** - 비공식 인터뷰

평택 지역 (바 파인에 나간 모든 여성들은 일부 손님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지역 (바 파인은 없지만 찾아간 클럽중 하나인 걸리버 클럽에 VIP 룸이 있었다)

4. 규칙, 벌칙, 폭행

이태원 클럽들의 규칙은 평택 클럽들의 규칙과 많이 다르다. 이태원 클럽들은 주스 할당제도 없고 여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바 파인도 없다. 그러나 평택에서 조사자가 만난 대부분의 여성들은 모든 여성들에게 부과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클럽에 바 파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에선 여성들이 자유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평택에서는 여성들이 항상 감시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유시간을 쓰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태원 여성들은 오후 7시부터 오전 2시까지 또는 손님들이 아직 클럽에 있을 경우에 더 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평택에서 만난 여성들의 경우 주중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오후 2-3시부터 오전 1시까지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여성들은 웨이트리스 역할도 하고 클럽 청소도 했다. 그러나 평택에서는 니이든 한국 여자들이 웨이트리스 역할을 하고 클럽도 청소했다. 이태원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들은 춤을 추지 않았지만 평택에서는 대부분의 필리핀 여성들이 야한 옷을 입고 돌아가면서 무대에서 춤을 췄다. 이태원과 평택 모두에서 여성들은 손님들을 맞고 되도록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클럽이 정한 할당량에 맞추기 위해 되도록 많은 주스를 팔도록 요구받았다.

표7 - 벌칙

이름	지각	결근	근무중 취했을 때	주스 할당량을 못채울 때	경찰 또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과 대화	기타 벌칙
1. 진 *	20,000원	US\$200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 손님 접대 못하면 만원 - 검 씹을때 만원 - 손님 대신 다른 클럽 여성과 얘기하면 만원
2. 레나 *	20,000원	US\$200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 손님 접대 못하면 만원 - 검 씹을때 만원 - 손님 대신 다른 클럽 여성과 얘기하면 만원
3. 페이스 *	휴식 시간 단축	정보없음	정보없음	50,000원	정보없음	정보없음

4. 미치 *	다른 동료들과 도망쳤다가 돌아온 후 벌칙과 벌금 없기로 합의	다른 동료들과 도망쳤다가 돌아온 후 벌칙과 벌금 없기로 합의	다른 동료들과 도망쳤다가 돌아온 후 벌칙과 벌금 없기로 합의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5. 잉그리드 **	20,000원	US\$200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 손님 접대 못하면 만원 - 검 씹을때 만원 - 손님 대신 다른 클럽 여성과 얘기하면 만원
6. 미라 **	20,000원	US\$200	US\$200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7. 제트 **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8. 패니 **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9. 리카 **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10. 지나 **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11. 트레이시 **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12. 벨라 **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13. 테스 **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14. 채트 **	휴식 시간 단축	정보없음	정보없음	50,000원	정보없음	정보없음
15. 티나 **	20,000원	US\$200	US\$200			

* - 공식 인터뷰
** - 비공식 인터뷰
평택 지역
이태원 지역

4.1 폭행 (언어적, 신체적, 성적, 정서적)

조사자가 목격하거나 여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조사중 알게된 폭행들은 힘을 이용해 여성들을 위협하는 것보다는 여성들이 클럽에서 겪어야 하는 보다 교묘한 강제적 형태를 띤 것이었다. 클럽 매니저들이 만든 묵시적 규칙은 클럽 여성들이 손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섹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말할 것도 없이 손님들이 여성들을 만질 수 있게 해야 하며 이것이 클럽 여성들 업무의 일부라는 것이다. 평택의 경우 충분히 주스

를 팔지 못했거나 바 파인에 나가는 것을 거절했을 경우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위협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교묘한 형태의 감정적 폭행이다.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은 개인 서류를(여권, 재외국민 카드 등등) 압수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이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체포됐을 경우 자신의 법적인 지위를 증명할 아무런 서류가 없으므로 잡힐까 두려워하게 된다.

4.2 클럽 주인과 매니저의 폭행

조사자는 이태원 클럽 주인과 매니저들에 의해 가해지는 폭행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 여성들은 클럽 주인들이 친절하고 모든 상황과 노동 환경은 그저 사업일 뿐이라고 설명해 주었으며 여성들에게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평택의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주스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벌칙은 없었지만 클럽 주인들로부터 혼이 나곤 했다고 말했다. 어떤 여성들은 너무 피곤해서 출근하지 못했을 경우에 클럽 주인에게 벌금을 내야했고 클럽 주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의료검진 비용도 자신들이 지불했다고 말했다.

4.3 손님 폭행

이태원 클럽의 여성들은 손님들이 클럽에 들어오면 자신들을 만지기는 하지만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평택의 클럽 여성들은 바 파인으로 손님과 같이 나갔을 경우에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식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이 성폭행 사실들을 증언했다. 강제든 아니든 바 파인이 있는 클럽들의 경우에, 여성들은 손님들에게 성관계를 맺을 때, 콘돔을 사용하기를 요구하곤 했다. 진과 레나는 바 파인으로 미군 병사들과 나갔을 때 겪었던 경험을 얘기했다. 이 여성들은 “그들이 너무 거칠어서 제발 그만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다”고 말했다. 이 남자들은 또 충분히 만족한 성관계를 갖지 못했으므로 클럽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겠다고 협박했다.

5. 건강, 알콜중독, 약물남용

미치와 페이스의 경우만 클럽 주인이 건강 검진 비용을 냈다. 다른 여성들은 자신들이 건강 검진 비용을 대거나 클럽 주인이 일단 내고 자신들의 급료에서 이를 제하곤 했다고 말했다. 건강 검진은 정기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할 경우에만 이뤄졌다.

일부 클럽들은 여성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는 손님들이 클럽 여성들이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떤 클럽들은 여성들이 좀더 용기를 갖고 손님들과 어울리고 무대에 올라가 춤을 출 수 있도록 술을 허락하기도 했다. 미라는 필리핀에서는 취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매일 4-5잔의 데킬라를 마신다고 말했다. 티나는 무대에서 춤을 추고 손님들과 더 잘 어울리기 위해 매일 몇잔의 위스키나 데킬라를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수줍음을 타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있게 된다고 말했다. 평택과 이태원의 여성들은 술을 통해 밤을 견뎌내는 것을 배웠다. 15명중에 약물 남용의 경우는 없었다.

6. 남자친구와 손님

대부분의 클럽 여성들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의 남자친구는 대부분이 클럽에서 주스를 사주며 친해진 미군들이다. 여성들은 필요한 것을 (옷, 화장품, 장신구 등등) 사주고 자신들이 하기 힘든 일을 도와줄 남자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자친구들은 보통 여성들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미군 부대에 있는 은행을 통해 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여성들이 다른 남자와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바 파인을 통해 여성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도 남자친구들이다. 패니는 자신의 미군 남자친구에게 부탁해 세탁을 하기도 했다. 클럽에는 세탁기도 없고 빨래를 말릴만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여성들은 남자친구가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문제를 들어주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라와 제트는 때로 남자친구가 질투를 해서 다른 손님들을 맞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클럽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해하는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괜찮지만, 이를 질투하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일하는 클럽 주변을 남자친구가 서성이면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몇몇 여성들은 “남자친구들은 다른 손님들이 우리에게 주스를 사줄 경우 이를 질투하지만, 손님들과 다른 술집에 갔을 경우 우리도 그들이 다른 여자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곤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클럽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손님들을 환영하지만 평택의 클럽들은 신분증이 있는 미군 남녀 병사들의 출입만을 허용한다. 페이스는 O 클럽의 경우 필리핀 남성들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필리핀 남성들이 여성들을 클럽에서 도망치도록 도와줄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택에는 일본, 독일과 다른 나라들에서 온 관광객들도 있

는데 이는 서울에 비해 평택이 쇼핑 비용이 싸기 때문이다. 다른 국적을 가진 공장 노동자들의 출입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모든 클럽들이 그렇지는 않았다. 클럽 주인들은 미군 기지의 통행금지 후나 미군 손님들이 안전문제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할 때 공장 노동자들을 받았다.

한국인들은 클럽 출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클럽 주인과 아는 사이일 경우에는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 클럽 여성들은 미군 병사들이 그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덜 공격적이라고 말했다. 미군 병사들이 바 파인으로 여성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어하는 경우에 그들은 먼저 여성들에게 같이 나갈 것인지 의향을 묻고 여자가 동의하면 클럽 주인에게 돈을 지불한다. 그러나 한국인 손님일 경우엔 여성들은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고 좋은 싫든 클럽 주인의 명령대로 옷을 입고 한국 손님과 나가야 한다. 페이스는 여성들에게 거칠지 않는 미군 병사들과 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 손님들은 클럽에 오면 거리낌없이 여성들의 가슴을 만지곤 하는데 그래도 이들이 자신들에게 후한 팁을 주는 손님들이라고 말했다. 진과 레나는 바 파인으로 나갈 경우 백인과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유는 둘 다 흑인 병사와 좋지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표8 - 손님

클럽 이름	미군 병사	한국인	필리핀인	다른 국적
U 클럽	✓	✓	✓	일본인, 멕시코인 방글라데시인, 파키스탄인 인도인, 이란인, 터키인, 러시아인, 유럽사람들
A 클럽	✓	✓	✓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O 클럽	✓	✓		없음
V 클럽	✓	✓		없음
P 클럽	✓	✓		없음
S 클럽	✓	✓	✓	없음
H 클럽	✓			없음
M 클럽	✓			없음
G 클럽	✓	✓		없음

✓ - 클럽 출입 허용

7. 생활 환경

조사자는 이태원의 U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 곳은 집에서 10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들이 기거하는 작은 방은 다른 국적의 클럽 여성들이 살고 있는 무너져 가는 건물에 있었다. 침대 하나를 두명이 같이 쓰고 간이 부엌이 있었다. 조그만 싱크대 옆에 캠핑용 작은 스토브가 있었는데 이것이 요리를 위해 쓰는 도구였다. 수도세, 전기세 등과 식료품은 클럽 주인이 대고 있었기 때문에,ジュ스 판매에 대한 커미션은 20%로, 남자 친구와 살면서 음식을 제공받지 않는 다른 두명의 여성들에 비해 작았다.

평택에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음식과 집, 그리고 수도와 전기 등을 공짜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 제트, 트레이시, 미치 등은 자신들의 집이 넓고 공짜라고 말했다. 식료품도 정기적으로 충분히 공급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라, 티나, 진, 레나, 잉그리드 등은 자신들의 집이 더럽고 통풍도 안되는 작은 집에서 침대를 같이 써야 했다고 말했다.

조사자는 클럽 지역에서 15분 떨어진 곳에 있는 패니의 집을 방문했다. 집은 방이 두개였고, 세명이 큰방을 같이 쓰고 두명이 아주 작은 방을 같이 쓰고 있었다. 패니는 식료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자신들이 조달하거나 손님들이 점심을 사주는걸 좋아한다고 말했다.

미라가 사는 집은 클럽의 꼭대기에 있었다. 집은 상태가 아주 열악했고 천장은 낡아서 곧 내려앉을 것 같았다. 미라와 같이 살고 있는 티나는 자신들이 식료품과 식수를 사야 한다고 불평했다.

이태원에 살고 있는 지나는 남자친구들이나 다른 친구들이 자유시간에 자신의 집에 오는걸 환영했다. 평택의 클럽 여성들도 남자친구들이 자신들을 방문하는걸 허용했다. 미라는 남자친구들이 음식을 많이 가져오는 한 오는걸 허락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무가 끝난 후엔 잠자리 점호가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들은 낮시간에만 이들을 방문할 수 있었다.

오산 클럽의 페이스는 잠자리 점호를 하는 O라는 미국 흑인 매니저가 있는데 그가 클럽 주인 몰래 여성들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는 투쟁이 노릇을 한다고 말했다. O를 통해 남자를 소개받은 여성들은 그와 50 대 50으로 돈을 나눠 갖곤 했다.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은 클럽마다 다르다. 어떤 클럽들은 정오에서 오후 5시까지

지 자유시간을 주고 어떤 경우엔 오후 1-3시 사이, 또 오후 1-5시 사이가 되기도 한다. 2주 동안 (10월 28일-11월 11일) 평택의 클럽들이 문을 닫았을 때 여성들은 자유시간에도 전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B. 클럽에서 도망친 여성들

여성들이 클럽을 뛰쳐나와 도망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미군 남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오랫동안 급료를 받지 못해서, 또 어떤 경우엔 여성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강제 성매매, 바 파인 등등) 클럽 주인이 요구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는 경우도 있었다.

1. 신상 자료

평택, 왜관, 이태원에 있는 클럽들에서 총 9명이 도망쳤는데 조사자는 그중 7명을 인터뷰했고, 나머지 두명은 각각 의정부와 동두천에서 다른 조사자들이 인터뷰를 했다. 평택에서 네명, 왜관에서 두명, 그리고 한명은 이태원에서 왔다.

조사자는 최근 평택에서 온 두명을 인터뷰했는데 왜관에서 온 네명과 이태원에서 온 한명은 그들이 필리핀 대사관에 피해 있을 때 인터뷰를 했다. 동두천과 의정부를 조사하고 있는 조사자들이 평택에서 도망친 두명의 다른 여성들을 의정부와 동두천에서 각각 인터뷰했다. 네명은 아직 한국에 있고 다섯명은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표1 - 신상 자료

이름	나이	최종학력	출신지	종교	결혼여부	부양가족
1. 잭키*	32	고등학교	바타안	가톨릭	별거	1남 2녀
2. 몰리*	25	고등학교	팜팡가	가톨릭	미혼	1녀
3. 치키**	27	고등학교	자료없음	가톨릭	미혼	1남 1녀
4. 로즈***	24	고등학교	리잘	가톨릭	결혼	부모

* - 보고서 작성 당시 아직 평택 지역에 거주 / ** - 필리핀 센터에 거주
*** - 미군 병사와 결혼해 의정부에 거주

2. 경로, 연락망, 이주 동기

2.1 한국 유흥업소로 일하러 오게된 동기

클럽에서 도망친 네 여성들은 필리핀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잭키는 한국에 오기 전에 다른 나라에서 일했는데 그때 이미 남편과 헤어지고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도움도 없이 세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는 물론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 부모님에게도 돈을 보냈다. 몰리도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 필리핀에서 일자리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일이 힘들거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다. 로즈는 평택의 B 클럽에서 일했던 자신의 여동생이 계약기간을 끝내고 필리핀으로 돌아온 뒤 한국에 왔다. 그녀는 네 명의 자녀중 맏이었고 이 때문에 전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필리핀에는 일자리가 있었지만 그렇게 얻는 수입은 외국에서 일하는 것과 비교해 충분치 않았다.

2.2 한국에 오기까지 과정

잭키는 M 고용회사에 신청을 했고 그녀의 송출업체는 팜팡가에 있는 M사였다. 그녀는 이전에 열달 동안 평택의 P 클럽에서 일했다. 그런데 그녀의 송출업자가 그녀의 비자를 갱신하는 걸 잊었고 희망했던 일년을 채우지 못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P 클럽 주인이 친절했고 이전엔 바 파인이 없어서 지금과 달랐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여행비와 공항세, 그리고 다른 잡비를 지불했다. 하지만 직업소개비와 비행기표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달 동안 급료를 받지 못했다.

몰리는 파사이 시에 있는 A사에 신청을 했다.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에 있는 송출업자가 (그녀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계약서가 한국어로 쓰여있었고, 아무런 번역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계약서에 확실히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몰랐다. 송출업자는 계약서에 추추고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만 써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서 바 파인을 해야되는줄 알았다면 필리핀 대사관이나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B 클럽에서 일하던 로즈의 여동생이 로즈에게 외국에서 일하도록 권고했고 여동생이 로즈를 마닐라에 있는 송출업체에 소개시켜 주었다. 필리핀 송출업자는 B였다. 로즈는

여권비와 공항세를 냈다. 로즈는 계약서가 한국어로 써있었기 때문에 읽지 못했고 통역도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표2 - 송출 비용

이름	비용 형태	금액
1. 잭키	여행 및 공항세 잡비	3,100 필리핀 페소 500 필리핀 페소
2. 몰리	없음	-
3. 치키	정보없음	없음
4. 로즈	여권 공항세	800 필리핀 페소 500 필리핀 페소

2.3 한국 이주 경로 및 연락망

클럽에서 도망친 여성 네명 모두 연예인비자(E-6)로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고 모두 경유지 없이 한국에 왔다. 네명중 잭키만 자신의 본명을 쓰지 않았는데, 이유는 한국에서 일하는 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표3 - 경로와 연락망

이름	클럽이름	한국도착	클럽에서 일한 기간 (1)	여행경로	현재상황 (2)	현재 거주지(3)
1. 잭키	P	2002. 8. 20	8개월(평택의 P클럽에서 10개월 일함)	경유없음	전자회사에서 일함	평택
2. 몰리	C	2001. 12. 21	6개월	경유없음	전자회사에서 일함	평택
3. 치키	Y	2001. 12. 21	7개월(그전에 T 클럽에서 2개월 반, 공장에서 3주, 평택의 O 클럽에서 1주일 일함)	경유없음	정보없음	필리핀
4. 로즈	U	2001. 11.	2개월(의정부 H 클럽에서 2주가 일했음)	경유없음	미군과 결혼한 주부	의정부

* 2002년 11월 18일에 필리핀으로 돌아감

예모: 1) 클럽에서의 기간은 도망치기전 마지막으로 있었던 클럽에서의 기간을 말한다.

2) 조사 종료 당시 직업 / 3) 조사 종료 당시 거주지

3. 노동과 생활 환경

3.1 급료와 재정 상태

네명중 로즈만이 계약서이 명시된 것보다 많은 급료를 받았다. 그러나 6달째까진 급료를 받지 못하게 돼 있었다. 두달후 도망쳤기 때문에 결국 아무 것도 받지 못했다. 유일한게 번 돈은 주스 판매와 바 파인으로 받은 커미션이었다. 한편 잭키는 한국에 올 때 발생했던 비용 변제 때문에 5개월까지 급료를 받지 못했다. 8개월 후에 도망쳤기 때문에 결국 잭키는 3개월치의 급료만 받았다. 불행하게도 치키는 일했던 클럽들에서도 돈을 못 받았고, 도망친 후 일했던 공장에서도 돈을 받지 못했다. 치키는 급료를 받지 못하고 바 파인과 주스 판매를 통해서만 약간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클럽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이 결국 무료로 일을 했고, 자신에게 제공된 것은 음식과 숙소뿐이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몰리가 받기로 한 금액은 48만원이었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30만원이었다. 몰리는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급료를 받지 못했다. 몰리는 6개월간 C 클럽에서 일한 후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도망쳤다.

표4 - 급료

이름	계약 급료	실제 받은 금액	지불 형태	강제 저축
1. 잭키	350,000원	350,000원	현금	없음
2. 몰리	480,000원	350,000원	현금	없음
3. 치키	정보없음	정보없음	-	없음
4. 로즈	US\$500	800,000원	현금	없음

3.2 주스 할당제와 성매매

주스 판매

네명 중 치키만이 다른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3천원보다 높은 커미션을 받았다. 몰리는 할당이 없었고 로즈와 치키는 매일밤 열잔을 팔아야 했다. 잭키는 매달 12만원 어치의 주스를 팔아야 했다. 손님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면 여성들에게 주스를 주문하게 했고 잔당 US\$10-12 또는 만원을 냈다. 일부 여성들은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바 파인에 나가 이를 채워야 했다.

표5 - 주스 판매

이름	잔당 가격	커미션	주스판매할당량
1. 잭키	10,000원	3,000원	한달 120,000원 어치
2. 몰리	10,000원	3,000원	할당없음
3. 치키	US\$10 또는 10,000원	4,000원	매일밤 열잔
4. 로즈	US\$12	US\$2	매일밤 열잔

바 파인 (Bar Fine)

네명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일한 클럽에서 바 파인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표 6을 볼 때, 여성들은 손님들이 지불하는 액수에서 각각 틀린 액수의 커미션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네명중 누구도 VIP룸 경험은 없었다. 손님들은 바 파인에 대해 달라로 요금을 지불했지만 여성들은 모든 커미션을 한국돈으로 받았다. 치키는 “미군들은 주스를 사지 않고 바 파인만 해요. 만약 주스를 못팔면 바 파인에 나가야 해요. 만일 내가 흑인이나 질 나쁜 손님하고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아줌마(mamasan)는 항상 화를 냈어요. 그러면 전 가야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줌마는 자기가 돈주고 나를 데려왔는데 나 때문에 돈을 잃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줌마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몰리는 클럽 주인이 바 파인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자신도 최소한 한달에 한 두 번은 바 파인으로 나가야 했다고 말했다.

표6 - 바 파인과 성매매

이름	바 파인 (손님 지불액)	커미션	VIP 룸	성매매		
				롱타임	숏타임	밤새기
1. 잭키	US\$300 US\$200 US\$150 US\$100	12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 몰리	US\$200(근무중) US\$100(근무후)	60,000원 30,000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 치키	US\$200 US\$ 90 US\$ 60 US\$ 40	US\$60 (지불액이 너무 작으면 받지 못한 것 같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 로즈	US\$100-150(자정까지) US\$200(종일)	US\$100당 US\$4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 규칙, 벌칙, 폭행

잭키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바 파인에 나가야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주스판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바 파인에 나갔다. 몰리는 클럽 주인이 욕을 하면서 손님 앞에서 자신을 혼냈을 때가 싫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저희 부모님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혼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건 예의가 없는 것이니까요.” 로즈는 필리핀에서 한번만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때는 송출업체가 비용을 부담했다. 한국에 온후 클럽 매니저가 그녀의 모든 서류를 압수했다. 치키는 “우리 클럽 주인은 때로 손님이 40달러만 내고 나랑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요. 제가 싫다고 하면 화를 내요. 어떨때 60달러를 받기도 하죠. 클럽 주인은 미군들에게 돈이 없으면 40달러만 내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전 화가 나요”라고 말했다. “손님과 나가기 싫다고 하면 항상 주인은 화를 내고 저한테 욕을 해요. 주인은 자기가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말하죠. 어떨때 손님들하고 나가면 그들은 저를 때리고 매력적인데 왜 성관계를 안하려고 하냐고 해요.”

로즈는 같이 일하던 필리핀 여성들이 도망쳤을 때, 주인이 자기가 도망친 여성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의심했다고 말했다. “화가 나서 도망친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얘기 하라고 절 괴롭혔어요. 모른다고 말하니까 제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클럽 뒤에 있는 주인 사무실에 저를 가두고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 후 저를 한국에 있는 연락책임 송출업체에 보냈는데 거기서도 도망친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저한테 계속해서 물었어요.”

표7 - 벌칙

이름	지각	결근	근무중 취함	주스할당 을 못채울 때	경찰이나 출 입국 관리소 직원과 대화	기타
1. 잭키	20,000원	US\$200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2. 몰리	US\$50	US\$200	US\$200 -300	없음	정보없음	남자친구가 집을 방문했다가 잡히면 US\$100
3. 치키	정보없음	US\$200	US\$200	50,000원	정보없음	점심때 남자친구를 만나면 US\$200
4. 로즈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욕함	정보없음	정보없음

5. 건강, 알콜 중독, 약물 남용

대부분의 다른 여성들처럼 이들도 처음 클럽에 왔을 때는 술을 마시지 않다가 술을 마시게 됐다. 이들은 주인이 해주지 않아서 스스로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들 여성중 누구도 약물 남용은 없었다.

6. 남자친구와 손님

좀 시간이 지나면 손님들이 이들의 남자친구가 됐다. 이들도 미군 기지 근처에서 일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님들은 미군들이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남자친구는 음식과 돈을 대주는 것 뿐만아니라 이들이 클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

치키는 "흑인 남자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난 도망가요. 전 안된다고 말하지만 남자는 취해있고 난 도망가요. 어떤 미군들은 정말 도움이 돼요. 그들은 나가고 싶을텐데 그렇게 하자고 하죠. 정말 좋아요"라고 말했다. 손님과 나가기 전에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미군들은 그에 동의하지만 한국 손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손님에게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말해도 손님은 강제로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그녀는 "그런후 클럽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들과는 절대 다시 말을 안해요. 그러면 주인을 저한테 화를 내요"라고 말했다.

잭키의 경우 남자친구가 결국 계약금을 지불해 더 이상 클럽에서 일하지 않아도 됐고, 평택에 집을 세내 남자친구와 같이 살았다. 로즈의 경우도 남자친구가 클럽에서 도망치도록 도와줬고 결국은 그와 결혼했다. 물리는 "남자친구와 나가면 음식이 떨어졌다거나 그런 얘기 등등을 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 남자친구들이 돈을 주거나 기지 안에서 쌀을 사다 준다고 했다.

표8 - 손님

클럽 *	미군 병사	한국인	필리핀인	기타
P	✓	✓		독일인, 영국인
C	✓			없음
Y	✓	✓		없음
U	✓	✓		방글라데시인

* 모든 클럽이 평택에 있음

7. 생활 환경

물리가 일했던 클럽에서는 클럽 주인이 식비, 집, 수도/전기세 등을 지불했다. 그러나 한 집에 살았던 사람이 13명인데, 그들에게 (12명의 여성과 한명의 필리핀 DJ) 지불된 식비는 고작 하루에 만원이었고, 자신들이 직접 장도 보고 요리도 했다.

8. 도주 형태

잭키는 사실 전에 일했던 P 클럽에 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필리핀 송출업체는 같았는데도 자신이 다른 P 클럽으로 보내진 것에 놀랐다. 그녀는 그곳에서 8개월만 일했고 남자 친구가 클럽 주인에게 3천불을 지불해 더 이상 클럽에서 일하지 않아도 됐다. 물리는 C 클럽에서 6개월만 일했고 바 파인때문에 도망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클럽을 도망치도록 도와줬다. 그녀는 "애초에 춤 추는것, 휴일 등에 대한 클럽 규칙에 대해 계약을 했는데도 매니저가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은 부당해요"라고 말했다. 치키는 두개 클럽에서 일했고 G 신부가 그녀를 Y 클럽에서 빼내준 후엔 공장에서 일했다. 그녀는 마지막 클럽에서 7개월간 일했고 인터뷰를 한 다음날 G 신부가 그녀를 필리핀으로 돌려보냈다. 로즈는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탈출하기 전에 두개 클럽에서 일했다. 그녀는 그 남자친구와 결혼했고 현재 남편과 의정부에서 살고 있다.

9. 현재 상황

잭키와 물리는 클럽을 떠난 후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잭키는 평택에서 미군 남편과 살고 있으며 그와 결혼하길 바라고 있다. 물리는 공장 친구와 방을 세내 살고 있고 현재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 로즈는 미군 남자친구과 결혼해 의정부에서 살고 있으며 치키는 11월 11일 필리핀으로 돌아갔다.